

**메디케어** 5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v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부동산** 9면  
은퇴 시니어들 모기지 재융자받기 힘들다

**은퇴플랜** 13면  
희망 없는 고령의 말기 암 환자에 공격적 치료 많아

**교육** 19면  
대학생 40% 심각하게 학교 그만둘까 고민중

**건강** 25면  
잘 감지되지 않는 신장암 대부분 65~74세에 진단



카슨시의 ‘콜로니 코브’ 시니어 모빌홈 타운 모습. 총 412 유닛 중 120여 유닛이 한인 소유다. 시니어 모빌 홈은 요즘 한인 은퇴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모빌 홈 시니어 라이프 2년 차 황근 씨 “대만족”

### Cover story

조용하고 전원적인 도심 속 은퇴자 주거 공간  
카슨시에 위치한 ‘콜로니 코브’ 시니어 타운  
429유닛 중 120여 유닛에 한인 입주  
다운사이징 하는 은퇴자들만의 ‘천국’



카슨시의 ‘콜로니 코브’ 시니어 모빌홈 타운 거주 2년차 황근 씨(65)가 이곳의 ‘왕고참’ 이상학 씨(99)와 황 씨의 집 앞에서 모빌홈에서의 은퇴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

황근 씨(65)는 지난해 카슨시의 한 모빌홈 타운으로 이사했다. LA 북쪽 벨리의 주택을 정리하고 2022년 4월 1,450 스퀘어 피트의 3 베드룸 2 배스의 모빌홈을 27만 달러에 구입했다.

양옆과 뒤편에 길고 넓은 공간으로 둘러 싸여 대지가 3,000스퀘어 피트를 넘는다. 자동차 4대 주차가 가능한 차고, 옆과 뒤편은 텃밭으로 사용하고도 남을 만한 크고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무성한 나무와 형형색색 다양한 꽃들이 에워싼 아늑한 공간이다.

웬만한 타운하우스 부럽지 않다. 타운 가운데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에는 수영장, 자쿠지, 강

당, 식당, 도서관, 당구실 등 다양한 위락 시설이 갖춰져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감당한다.

모빌 홈 2년 차인 황 씨의 만족도는 100점을 훌쩍 뛰어넘는 “대만족”이라고 한다.

이곳 모빌홈 타운은 LA 남쪽 카슨시에 위치한 ‘콜로니 코브’(Colony Cove). 55세 이상 시니어 거주 단지다. 이곳에는 황 씨에 앞서 들어온 120여 한인 가구가 살고 있다. 전체 429유닛 중에서 30%를 차지하니 3집 중 한집이 한인이라는 말이다.

요즘 은퇴 한인들 사이에서 시니어 모빌홈 타운이 인기다.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값싸고 조용한 시니어 타운으로 이사한다.

가격이 저렴한 은퇴자들의 다운사이징에 안성맞춤이다. 시니어 타운보다 가격이 더 낮고 다른 집과 벽이 붙어 있지 않아 매우 독립적이다. 황 씨의 집은 전주인이 이중 방음벽을 설치해 가라오케를 해도 외부에서 들리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12면에 계속

### 주택 모기지 연체금 보조

## 모기지, 재산세 연체금 가주 8만 달러 무상 지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팬데믹 이후 재정이 어려워 주택 모기지를 연체했거나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최대 8만 달러까지 보조해 준다고 한인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홍보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산하 주택소유주제공사(CalHRC)에서 전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다.

또 연체 재산세를 최대 2만 달러까지 역시 무상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체납된 재산세, 리버스모기지 연체 재산세 및 주택 보험, 연체 또는 부분상환 모기지다.

주 정부는 현재까지 총 1만 5,000가구에 4억 달러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 지원을 원할 경우 첫 지원금을 합쳐 최대 총 8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구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다.

18세 이상 가족의 가구 합산 소득이 각 해당 카운티별 지역 중간 소득(AMI)의 15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가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이 필요한 자금에 2만 달러를 합친 금액보다 많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이 대출을 받을 당시의 ‘컴퍼밍톤’ 한계 금액을 초과하면 안되는 등의 규정에 맞아야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팬데믹 이후 재정이 어려워 주택 모기지와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최대 8만 달러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김정섭 기자 10면에 계속

### 칼럼

정대용 변호사	20
김연신의 영어 한마디	22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
이해우의 추천 詩 / 이정아의 수필	26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7
김동희 칼럼	30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nleegallery.com

##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을 알려드립니다.



창립 30주년  
서울메디칼 그룹



*Always be with You*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30년  
함께할 그 이상의 시간!**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달려온 시간의 경험만큼  
어르신들을 최고로 모십니다!

지난 30년간 서울메디칼 그룹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준 높은 진료와 편리한 의료 서비스,  
가장 많은 의료진과 가장 넓은 네트워크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메디칼 그룹의 의료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의료 정신을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6년 연속 5스타**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SMG 서울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독자와 함께**  
 돌·결혼·동창회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사진 첨부 가능)  
 contact@usmetronews.com



# 은퇴자 미성년 자녀도 소셜 연금 받을 수 있어

**Q** 이혼한 남편이 미성년 아이 양육비를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했다면서 아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한다. 정말 아이에게도 소셜 연금이 나오나.

**A** 아이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제도는 세금을 낸 은퇴자나 사망자의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에게까지 연금을 지불한다.

다시 말해 부모 중 한명이 은퇴를 했거나 장애, 또는 사망을 했을 경우 자녀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고 부모 수입이 없거나 적어 극빈자로 분류된다면 우리가 웰페어라고 부르는 보충안정 수입(SSI)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모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원래 근로자가 만기 은퇴 정년(FRA)에 받을 연금의 150~180%까지만 가능하다.

### 자녀의 소셜 연금 자격

우선 부모의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10년 이상(40 크레딧 이상)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근로 기록이 충분하다면 친자녀, 입양 자녀, 의붓 자녀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주들도 해당 될 수 있다. 조부모가 이들을 입양해 키운다면 손주뿐 아니라 입양, 의붓 손주 모두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은퇴했거나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장애인 예외) ▲18세 이하 또는 풀타임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18~19세까지 가능(18세가 넘었다면 고교 졸업 또는 19세 2개월 중 먼저 올 때) ▲18세 이상이라도 22세 이전에 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 자녀



부모가 은퇴, 장애, 사망했다면 가능  
 18세 미만, 장애인, 18~19세 고교생  
 극빈 자녀라면 17세까지 SSI 자격  
 부모 연금의 50%, 가족 총액은 150~180%



이다.

또 소셜 시큐리티 생존자 연금도 같은 조건이지만 해당 부모가 숨졌어야 한다.

### 자녀 SSI

보충안정수입(SSI)는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구제 프로그램이다. 수혜 자격은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지만 어린 자녀들도 SSI를 받을 수 있다.

자격으로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 ▲이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됐고 또 12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일 때 ▲시각장애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시각 장애가 아닌 자녀라면 한 달 1,350달러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시각 장애 자녀는 월 2,260달러 이상 벌 수 없다.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SSI 자격을 잃게 된다.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SSI 신청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자녀가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신청 기간 중에도 돈을 지불해

준다. 만약 SSI를 받는다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도 함께 받는다.

### 얼마나 받을까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부모의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의 50%다.

만약 부모가 죽었다면 죽은 부모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연금의 최대 75%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많다면 모든 자녀들에게 이 연금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록에 따른 가족 연금의 액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은 만기연령 때 받는 100% 연금의

150~180%까지다. 만약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약 485만 명의 자녀들이 31억 3,000만 달러가량의 연금을 매달 받았다.

가족들이 받게 되는 최대 금액이 한계금액을 넘게 되면 비율대로 연금을 줄어들어 지불된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한 길동에게 부양 자녀 순이가 있다. 순이는 미성년자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 길동이 만기 은퇴연령때 받는 월 소셜연금은 1,500달러라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은 월 2,300달러다. 따라서 길동은 1,500

달러를 받게 되고 부인 영희는 800달러, 딸 순이는 400달러로 나눠 지불된다.

### 자녀 연금 신청 서류

자녀 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생일이나 입양을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하다. 또 부모와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역시 제출해야 한다. 어떤 연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s)을 신청한다면 부모의 사망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장애 자녀 연금을 신청한다면 자녀가 장애라는 것을 증명해 줄 의사의 의학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생존자 연금 수령 연령

남편 또는 부인이 죽어 생존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생존자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16세가 지나면 더 이상 부모 자격으로 받는 연금은 중단됐다가 60세 이후부터 재개된다. 단 자녀는 18세까지 계속 받는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어 계속 돌봐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생존자 연금은 계속 지불된다.

신청과 문의는 소셜시큐리티국 1-800-772-1213 (TTY 1-800-325-0778) 또는 가까운 소셜시큐리티오피스에서 하면 된다.

김정섭기자 john@usmetronews.com



## 65세의 큰 선물!!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무료 상담**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플랜

#OG15778

# 소셜연금

## “사회복지 ‘소셜 시큐리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 3분의 2는 소셜시큐리티 이해 못해  
3분의 1은 아예 낙제점 받아 전문가들 당황  
절반 가까이는 은퇴후 얼마 받는지 몰라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소셜시큐리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에 살려면 꼭 알고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은퇴에 가까운 미국인들은 누구나 소셜시큐리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은퇴후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한인들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한 보험회사가 실시한 이해도 테스트에서 무려 3분의 2가 넘는 69%가 소셜시큐리티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해도 낮아

매스뮤추얼 보험사가 미국인들에게 소셜시큐리티와 관련된 13개 질문을 던져봤다. 그런데 은퇴 연령에 가까운 55~65세 미국인들 대부분

은 낙제 점수를 받았다.

다만 이 연령대 미국인들은 소셜시큐리티가 은퇴후 매우 중요한 수입이라는 사실만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매스뮤추얼 분석에 따르면 설문 대상 1,500명의 43%는 은퇴후 얼마의 소셜연금을 받는지 알지 못했다.

이 보험사의 소셜시큐리티 전문 재정 플래너 데이빗 프리태그는 “은퇴 연령에 근접한 나이인데도 연금 액수를 모른다는 결과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질문 조사 결과, 69%는 간신히 낙제점을 모면했거나 낙제 점수를 받았다. 3분의 1 이상인 35%는 질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나머지 34%는 D 학점을 받았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응답자의 84%는 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절반은 언제까지 신청을 미룰 수 있는지조차 대답하지 못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질문 그래프 관련

12번 질문 해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기타 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대상이다.

다시말해 소셜연금 만 받고 산다면 소셜연금에서 내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소액이다. 하지만 IRA는 다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했다면 이를 전통 IRA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금을 내는 조정후 총수입(AGI) + 세금을 내지 않은 비과세 이자 + 소셜시큐리티 연금 절반을 합친다. 이

렇게 나온 금액을 ‘혼합 수입’ (combined income)이라고 부른다.

이 혼합 수입이 정부가 정한 수입 기준을 넘는지를 계산해 본다.

개인 세금 보고자로 이 혼합 수입이 2만 5,000~3만 4,000달러에 해당한다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5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금액이라는 말이다. 또 혼합 수입이 3만 4,000달러 이상이라면 연금의 최대 85%까지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이 된다.

부부의 경우는 한계 금액이 높아진다.

혼합 수입이 3만 2,000~4만 4,000달러라면 연금의 50%까지가 과세수입이다. 또 4만 4,000달러 이상이라면 85%가 과세수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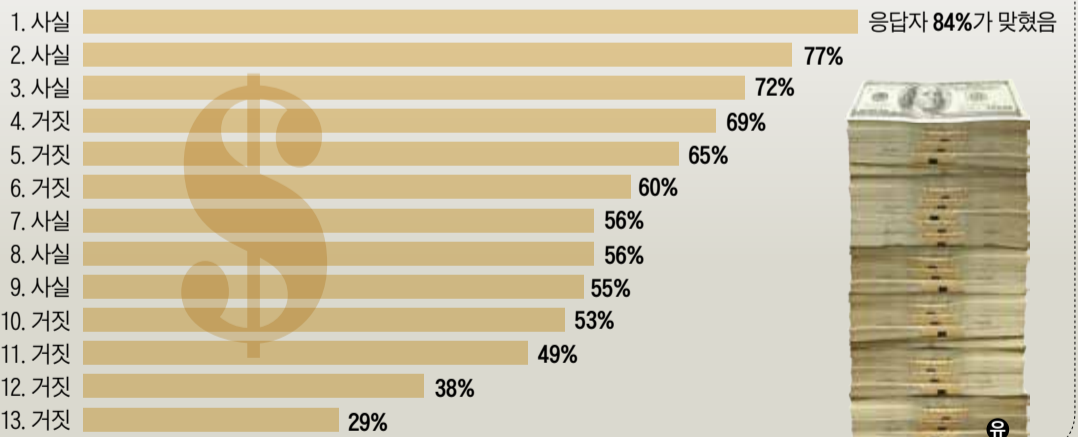


### 매스 뮤추얼이 실시한 질문

문항에 ‘사실’ 또는 ‘거짓’으로 답해 자신의 이해도가 얼마인지 독자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질문에서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이란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은퇴 정년을 말하며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1960년생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질문	사실	거짓
1 대부분의 경우 만기 은퇴 정년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조기 신청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만기 은퇴 정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한다면 지급되는 연금은 벌어들이는 수입에 따라 줄어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배우자가 있다. 일을 한번도 하지 않았거나 조금 밖에 하지 않았어도 남편 또는 부인의 근로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일반적으로 동성결혼을 했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격은 정상 부부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배우자가 있는데 사망한다면 내가 만기은퇴연령에 받는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만기연령에 받는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급여에서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나를 위한 특별 계좌에 들어가고 이자까지 가산돼 나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지불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소셜연금을 신청하고 18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이들 자녀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혼을 했다.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현행 법상 2035년이 되면 모든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현행법상 만기은퇴정년은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65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70세가 지나서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연기하는 동안 매년 계속해서 돈은 불어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전통 IRA에 인출하는 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답



## 메디케어 - 메디칼 무료상담

- ☑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보장
- ☑ 한방 침술 최대 보장
- ☑ 일반 건강 용품 (OTC 최대 보장)
- ☑ 고급 보청기 보장

Tel. (213)700.8150 Lic. 0192211

허만진



# ‘오리지널 메디케어’ v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Q** 65세가 돼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설명 해주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몸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수술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메디케어를 받는 65세 한인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고민이다. 우선 메디케어가 무엇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먼저 이해한 다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그것이다.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유지비가 많이 든다. 대신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주치의의를 선정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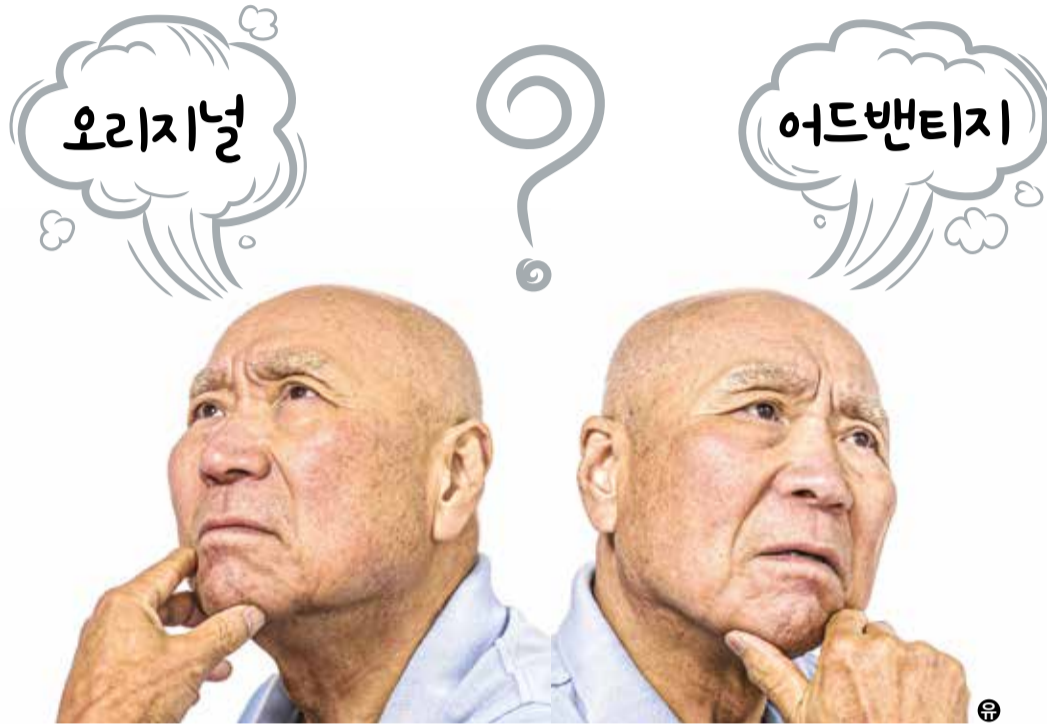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 병원을 마음대로 찾아가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 연방정부에서 내는 파트 B 보험료 이외에 정부나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다. 다만 주치의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치의의를 선정하고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진 네트워크(메디칼 그룹)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HMO 또는 주치의의 승인 없이 다른 네트워크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PPO, 그리고 건강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PFFS로 나뉜다.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등 다양한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요즘 메디케어 가입자의 절반이 어드밴티지를 선택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회사들의 이익이 너무 많고 연방정부 메디케어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오리지널 메디케어



65세 메디케어 가입자의 가장 큰 고민  
건강 상태와 재정 능력이 가장 큰 잣대  
오리지널은 전국서 사용 의료비 20% 내야  
어드밴티지는 ‘지역구’지만 모두 커버

65세가 되면 연방정부는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이를 ‘전통’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고 부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국 어디에서나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연방정부 메디케어는 병원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A와 의사 관련 진료비를 내주는 파트 B 혜택만 제공한다. 여기에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처방전 의약품 혜택 파트 D는 없다. 따라서 별도로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65세 생일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연방정부는 고유 번호와 파트 A, 파트 B 혜택이 시작되는 날짜가 찍힌 메디케어카드를 보내준다.

이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돼 집으로 메디케어 카드가 날아온다.

**파트 A**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미국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자격이 되는 10년 근로 기록(40 크레딧) 이상을 갖고 있

다면 무료로 제공된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루게릭 병, 말기 신장질환자, 24개월 이상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메디케어가 제공된다.

만약 근로 기록이 없다면 월 509달러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돈을 내고 파트 A를 구입했다면 파트 B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 나이가 됐는데도 크레딧이 없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파트 A는 일정 기간 동안 병원과 재활병원(양로병원), 호스피스, 홈헬스케어 등을 커버해 주는데 디덕터블(2023년 1,600달러)과 코페이먼트를 내야 한다.

**파트 B**  
의사 진료비를 커버해 준다. 대신 100% 커버해 주지는 않는다.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파트 B 역시 226달러의 디덕터블이 있다. 의사 서비스와 외래 서비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카이로프랙틱 치료, 홈헬스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DME), 많은 예방의학 서비스를 커버해 준다. 월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표준 보험료는 164.90달러이고 수입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파트 D**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해야 하는데 63일 동

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대부분 전국에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전국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여행에 나선다면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메디갭)**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한다면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의료비 20%는 가입자 부담해야 한다.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다. 이 메디갭을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갭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흔히들 파트 C라고 부른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일반 건강보험회사가 판매한다.

가입 자격은 합법 체류 신분이어야 하며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해 있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카드를 받은 후 파트 C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파트 A, 파트 B, 파트 D, 그리고 메디갭 혜택까지 제공되는 원스톱 건강보험 플랜이다.

단점은 주치의의를 정해야 하고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치의의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HMO). 정해진 주치의의 의사 네트워크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랜도 있다. 이를 PPO라고 부른다. 다만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비싸진다.

자넷김기자

## 65세가 되셨나요?

### 메디케어 신청과 가입 상담

시니어  
건강보험

CA Lic #0L06761

<p><b>HMO</b> (어드밴티지 플랜)</p>	<p><b>Supplement 플랜</b> (보조보험 PPO)</p>	<p><b>처방약 보험</b></p>
<p><b>홍은주 Eun-Joo Powell</b>    <b>Cell: (909) 576-3236</b></p>		

# 메디케이드

## 캘리포니아, IRA 돈찾기 시작하면 메디칼 자산 제외

IRA, 401(k) 적립금, 메디케이드 자산 규정 달라  
 주마다 규정 조건 달라 전문가 상의해야  
 RMD 규정 없는 로스 IRA는 대부분 자산 포함  
 메디케이드 비신청 배우자 명의는 대부분 주에서 제외

**Q**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 두었던 은퇴적립플랜 401(k)와 개인 은퇴 연금 IRA를 가지고 있다. 은퇴후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은퇴 플랜도 재산에 포함돼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나.

**A** 자주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지만 시행은 주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정은 없다. 각 주정부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일부주에서는 401(k)나 IRA는 돈을 찾아 쓰기 시작하면 메디케이드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찾지 않고 있다면 자산에 포함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은 주마다 다르므로 주 재정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IRA, 401(k) 등 은퇴 저축구좌가 메디케이드에 미치는 영향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IRA 또는 401(k) 역시 주정부 정책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은퇴후 최소 인출금(RMD) 이상의 금액을 구좌에서 인출한다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시켜 준다. 다시말해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대로 인출하지 않는 연금 구좌는 자산으로 포함돼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간병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주정부가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들여다본다. 대부분 주에서는 개인 2,000달러 이상, 부부 3,000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양로원이나 재택 간병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 가진 자산을 다 쓴 다음에 돈이 없다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는 자산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은 개인 3만180달러, 부부 4만820달러까지의 자산을 허용한다. 자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롱텀 케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미네소타는 개인 3,000달러까지, 부부 6,000달러까지 허용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보다 훨씬 관대하다. 은행구좌를 포함해 개인 13만달러, 부부 19만5,000달러까지의 자산은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아예 자산 한계를 없앤다.

### IRA 인출금 규정

켄터키, 노스 다코타와 같은 주는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IRA/401(k)를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목록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이다. 또 약 14개 주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IRA 또는 401(k)를 재산에서 제외시킨다. 일부 주는 이들 구좌에서 돈을 찾기 시작해야만 재산 목록에서 제외해 준다.

재산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주의 경우 찾아 쓰는 금액은 신청자의 수입에 포함시킨다. 수입이 많아지면 메디케이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주는 찾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구좌를 자산 목록에 포함시킨다. 이 규정은 IRA와 401(k) 뿐만 아니라 403(b)s, Keoghs, TSA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등은 최소 인출금(RMD) 이상의 돈을 찾기 시작한다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IRA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찾는 금액은 수입으로 포함돼 자격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펜실베이니아는 인출을 시작해도 자산으로 포함할 정도로 엄격하다.

### 펜션(pension)

펜션은 IRA, 401(k)등과 다르게 적용된다. 401(k)는 직장인이 받은 급여에서 은퇴를 대비한 돈을 모아두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펜션은 회사가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해당 직원의 은퇴를 대비해 회사가

주별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산 포함 여부 비교표

주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IRA	자산 제외를 위한 RMD 지급금 규정	배우자의 IRA	자산 제외를 위한 RMD지급금 규정
앨라배마	자산	N/A(해당없음)	자산	N/A(해당없음)
알래스카	자산	N/A	제외	No
애리조나	자산	N/A	자산	N/A
아칸소	자산	N/A	자산	N/A
캘리포니아	제외	Yes	제외	No
콜로라도	자산	N/A	자산	N/A
코네티컷	자산	N/A	자산	N/A
델라웨어	자산	N/A	제외	No
워싱턴 D.C.	제외	No	제외	No
플로리다	제외	Yes	제외	Yes
조지아	제외	Yes	제외	No
하와이	자산	N/A	자산	N/A
아이다호	제외	Yes	제외	No
일리노이	자산	N/A	자산	N/A
인디애나	자산	N/A	제외	No
아이오와	자산	N/A	자산	N/A
캔자스	자산	N/A	제외	No
켄터키	제외	No	제외	No
루이지애나	자산	N/A	자산	N/A
메인	자산	N/A	자산	N/A
메릴랜드	자산	N/A	자산	N/A
매사추세츠	자산	N/A	자산	N/A
미시간	자산	N/A	자산	N/A
미네소타	자산	N/A	자산	N/A
미시시피	제외	Yes	제외	Yes
미주리	자산	N/A	자산	N/A
몬태나	자산	N/A	자산	N/A
네브래스카	자산	N/A	자산	N/A
네바다	자산	N/A	자산	N/A
뉴햄프셔	자산	N/A	자산	N/A
뉴저지	자산	N/A	자산	N/A
뉴멕시코	자산	N/A	자산	N/A
뉴욕	제외	Yes	제외	Yes
노스캐롤라이나	자산	N/A	자산	N/A
노스다코타	제외	No	제외	No
오하이오	제외	Yes	제외	Yes
오클라호마	자산	N/A	자산	N/A
오리건	자산	N/A	자산	N/A
펜실베이니아	자산	N/A	제외	No
로드아일랜드	제외	Yes	제외	Yes
사우스캐롤라이나	제외	Yes	제외	Yes
사우스다코타	자산	N/A	자산	N/A
테네시	자산	N/A	자산	N/A
텍사스	제외	Yes	제외	Yes
유타	자산	N/A	제외	N/A
버몬트	제외	Yes	제외	Yes
버지니아	자산	N/A	자산	N/A
워싱턴	자산	N/A	자산	N/A
웨스트버지니아	자산	N/A	제외	No
위스콘신	자산	N/A	제외	No
와이오밍	자산	N/A	제외	No

돈을 내고 모아두는 프로그램이다. 직원은 이 펜션에 기여하지 않는다. 요즘은 회사 부담이 커져 펜션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주 줄어들었다. 따라서 펜션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매달 받는 지불금은 수입에 포함돼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펜션은 원금 인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회사가 낸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불 수령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일시불 지불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JGP 신발을 신어야 할 사람

- ▣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 목의 통증
- ▣ 디스크 환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경추, 흉추, 요추)
- ▣ 걸을 때 발바닥 혹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오는 사람
- ▣ 오래 서 있으면 아프거나 다리가 붓는 사람 ▣ 당뇨병
- ▣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사람 (강사, 교사, 미용사, 매장 근무자 등)
- ▣ 평발, 요족(까치발), X자형 다리, O자형 다리
- ▣ 손발 저림, 쥐가 잘 나는 사람, 발이 불편한 사람
- ▣ 자세 교정이 필요한 사람 (컴퓨터 사용자, 학생, 공무원 등)

## JGP건강기능 교정신발/수제화

바른  
착용

에너지  
증진

균형잡힌  
보행

강한  
허리

- 신는 순간에 허리에 힘이 생김
- 걸을때 중심이 잡힘
- 피곤이 덜하고 편하고 힘이 생김
- 혈액순환 · 당뇨병

T. 213.200.6111 · 213.219.6966

**30**  
1993  
2023  
창립 30주년

# 서울 메디칼 그룹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Always be with You*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30년  
함께할 그 이상

지난 30년간 **서울 메디칼 그룹**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준 높은 진료와 편리한 의료 서비스, 가장 많은 의료진과 가장 넓은 네트워크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6년 연속 5스타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TEL 213.389.0077 • 800.611.9862

건강

# 미국인 생명보험 가입률 계속 줄어들어

52%만 보험 가입, 2011년 63%보다 낮아져  
재정적 부담, 종류 복잡해 포기 많아  
생명보험 없다면 배우자, 자녀에 큰 부담  
장례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 보호 가능

미국 생명보험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생명보험은 배우자나 자손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많은 한인들은 생명보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명보험조차 없다면 죽은 후 장례 부담은 고스란히 자손들의 몫이다. 참고로 요즘 화장을 한다고 해도 장례비가 1만달러는 족히 든다.

생명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간단한 장례비용을 지불해주는 장례보험부터 투자형, 요즘은 장기간병비용까지 내주는 하이브리드 형태 인기도.

복잡하지도 않고 가장 간단한 생명보험이 ‘텀’(term)으로 부르는 ‘정기생명보험’이다.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동안만 혜택을 준다. 그래서 임시 생명보험으로도 불린다. 따라서 가격도 싸다.

생명보험협회 모임인 ‘리마’(Lima)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성인 절반인 52%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 10여년 전인 2011년 63%보다 낮아졌다. 가입자 수의 차이는 대략 2,000만 명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상품이 많아져 소비자들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수년동안 낮은 이자율이 지속되면서 보험회사의 수익이 줄어 상품을 판매하는 많은 회사들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리마’의 앨리슨 살카 수석 부회장은 “집을 사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생명보험을 구입하게 된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매일 매일 지출에 쫓기다 보면 보험 가입을 나중에 미룬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이 부족해 일상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특히 생명보험이 더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비싸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건강하고 젊은 나이에는 보험료가 매우 싸며 첨단 기술의 발달로 200만 달러 미만의 많은 생명보험은 더 이상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 가정에서 주 수입원이 죽으면 큰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리마’에 따르면 미국인 42%는 가정의 주 수입원이 갑자기 죽으면 재정적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생명보험을 말할 때 장례비 총당을 고려한다. 하지만 장례비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

▲수입 대체 수단: 주 수입원이 죽는다면 살아있는 가족들은 생명보험 보상금으로 고인이 벌었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수개월 또는 수년간 가족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모기지 커버: 생명보험으로 모기지를 갚을 수 있다. 모기지가 없다면 가족들이 더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35세 비흡연자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비교

단위: 달러

	보험금 25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저축성 종신보험료(Whole)	243~288	481~571	947~1,121
20년 정기보험료(Term life)	17~19	26~31	42~51

▲자녀 교육: 생명보험금으로 자녀들의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가족의 의료비: 부모나 친족,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프다면 생명보험으로 이들의 장기 의료비용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페리곤 웰스 매니지먼트’의 레이첼 일슨 공인 재정 플래너는 “누군가가 죽어 가족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 생명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때**

생명보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도 없고 부양 가족도 없다면 구태여 생명보험을 가

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부양 가족이 없다면 간단한 장례보험 정도만 가입하면 된다.

**어느 정도 필요할까**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통 자신이 버는 수입의 10~20배가 적정선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금액을 정할 때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또 얼마나 오랫동안 걱정없이 가족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대학까지 갈 돈을 마련해 주고 싶거나 배우자가 집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보험금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보험을 구입할까**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모든 보험은 2가지로 구분된다.

현금이 쌓이는 보험(Cash value insurance)와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다.

현금이 쌓이는 보험은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종신 보험이다. 보

험료를 내면 생명보험료를 빼고 남은 돈을 저축 또는 투자해 현금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보험에 쌓인 현금을 빌려 쓸 수도 있다.

종신 보험은 ▲종신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과 주식시장에 투자해 돈을 불려 나가는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이 저축성 보험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 비교 사이트 ‘폴리시지니어스’(PolicyGenius)에 따르면 일반 종신 생명보험 보험료는 텀라이프보다 10배가량 비싸다.

텀라이프(정기 생명보험)는 10년 또는 20년 같이 일정 기간을 정해 놓은 임시 보험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매우 싸다. 특히 젊어서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다.

예를 들어 건강한 35세 가입자가 25만 달러의 저축성 종신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대략 243~288달러다. 그러나 20년 만기 정기생명보험에 가입하면 17~19달러의 월 보험료를 내면 된다. 반면 45세라면 28.66~35.57달러라고 ‘폴리시지니어스’가 추산했다.

자넷김기자

**지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들으며**

‘고인이 고개를 끄덕 일만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flulove@yahoo.com





# 은퇴 시니어들 모기지 재융자받기 힘들다

### 크레딧 좋아도 수입 부족하면 거부 나이 들수록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기타 재정 능력 고려하는 정책 변화 필요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림 같이 작은 집을 구입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유하는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누군가가 코사인을 해 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힘들다. 갠아 나갈 월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현금 주고 구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은퇴 부부(68세)는 모두 840점이 넘는 완벽한 크레딧 점수를 가지고 있다. 페이오프 된 집도 있고 은퇴 적립금도 쓸쓸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원하를 자동차를 골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요 은행에서 모두 거절을 했다는 것이다. 딜러에서 어찌어찌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윤씨 부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 대학에서 일하다가 코비드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한 변호사 모리스투어트(60)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1에이커 땅에 지어진 3베드룸 랜치 하우스를 재융자해 다소간의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30년 근무 기록도 있고 크레딧 점수도 800 이상이다. 집 가치는 50만 달러로 추산됐고 남은 모기지가 10만 2,000달러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또다른 집은 이미 페이오프 돼 현재 렌트를 주고 있다.

그런데 모기지 회사에서 재융자를

거부했다. 그녀는 “충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융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는 매우 황당했다”고 말했다.

### 이들의 케이스가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보다 신용도 점수도 높은 시니어들의 모기지 거부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집을 고치거나 에퀴티를 뽑아 의료비 등 기타 비상금을 마련하려는 시니어들에게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니어들의 재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5~74세 주택 소유주 중에서 주택 에퀴티는 이들 재산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55%로 더 높다.

하지만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은 재산이 될 수 없다. AARP 공공정책 연구소의 트라윈스키는 “집을 재융자 하거나 팔았을 때만 가용 재산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은행의 나티 아몬시리파니치 이코노미스트가 2018~2020년 ‘홈 모기지 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900만 건 이상의 모기지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신청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거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70세가 넘으면 급격히 상승한다고 밝혔다.

재융자의 경우 거부율은 17.5%였



지만 60대는 19%로 조금 오르다가 70세 이상은 20% 이상이었다.

특히 나이가 든 신청자들은 신규 또는 재융자 모두 이자율이 높았다.

연방 ‘균등크레딧기회법’에 따르면 연령이나 인종, 종교, 출신국, 성별, 결혼 상태, 공공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한다. 대출 회사들은 신청자의 연령을 물을 수 있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 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회사들이 거절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불충분한 담보’다.

아몬시리파니치 이코노미스트는 아마도 대출 회사들은 신청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당 주택의 가치를 높이 쳐주지 않는 것 같으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또 관리가 안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출 회사는 특히 시니어들의 사망 가능성을 걱정한다.

30년 모기지 대출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다면 회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모기지가 일찍 페이오프 됐다면 모기지 회사들은 저리에 재융자를 해 줄 수 있지만 신청자가 죽어

차압으로 가게 되면 은행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은퇴 수입 부족

앞선 스튜어트의 케이스를 보면 대출 회사는 은퇴 후 수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테레사 길라두치 ‘뉴욕 소셜연구 뉴스쿨’의 노동전문 이코노미스트는 “직장인은 직장이 없는 사람보다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때문에 은퇴 후 모기지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시니어들은 앞선 세대보다 부채가 더 많다. 이는 모기지 대출 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채대소득’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아지며 대출 거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리나 주 워싱턴 도시연구소 연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21년 75세 이상의 모기지 거부율은 18.7%로 65세 미만의 12%보다 높았다. 65~74세는 15.4%였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주택 에퀴티를 이용한 라인오브크

레딧(사용할 때만 이자가 가산됨) 거부율은 다른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반면 일시불로 받은 현금 재융자는 2020년 75세 이상 신청자의 21% 이상이 거부됐다. 65세의 14.6%보다 높았다.

연방주택국 보증 리버스 모기지의 일종인 ‘주택에퀴티컨버전 모기지’ (HECM)의 경우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거부율이 더 높다.

### 정책 변화 필요

주 이코노미스트는 종전의 초저 이자율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출은 매우 쉬운 일이었지만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홈 에퀴티를 이용한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에 의한 장애를 줄이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이나 부채 보다는 현재 보유 재정 능력을 고려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는 또 이같은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연방주택도시개발국과 FHA와 같은 연방 기관과 패니매, 프레디맥이 개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 복잡한 메디케어보험 자세히 도와드립니다.

**65세 되시는 분**  
(1958년 생)

- ☑ Part B 보험료 혜택
- ☑ Part A 또는 Part B를 늦게 받으신 분
- ☑ 타주/카운티에서 이사하신 분
- ☑ 직장 보험에서 나오시는 분
- ☑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비용으로 고민하시는 분

**조이스리** 0L98108

**(213) 500-8330**

지금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GW 골드웰 종합보험**  
GOLDWELL INSURANCE SERVICES

# 부동산

## 모기지, 재산세 체납 소유주 8만 달러까지 무상보조

### 캘리포니아주 4유닛 주택 소유주 대상 모기지 지원받았어도 2차 지원 가능 카운티 중간 소득 150% 이하 수입

#### 1면에서 계속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산하주택소유주구제공사(CalHRC)에서 전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갚을 필요가 전혀 없어 재정이 어려운 한 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모기지,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등 3가지다. 모기지와 리버스 모기지는 최대 8만달러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세는 최대 2만 달러까지다.

주정부는 현재까지 총 1만 5,000 가구에 4억 달러가 무상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미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도 2차 지원도 가능하며 첫 지원금을 합쳐 최대 총 8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재정 자격

▷18세 이상 가족의 총 수입이 카운티 별 중간 소득의 15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 1인 가구는 12만 5,000달러 미만이다. 오렌지카운티는 14만 3,000달러이며 가족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커진다. 많은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은퇴 계좌 제외)이 필요한 지원금 + 2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필요한 모기지 지원금이 3만 달러라면 주택 소유주가 보유한 재산은 2만 달러를 합쳐 5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또 필요한 재산세 체납금이 1만 달러라면 역시 주택 소유주의 보유 자산이나 현금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대출 받을 당시 주택 소유주의 1차 모기지 원금이 '컨퍼밍 론' 한계금보다 많아서 안 된다.

#### 부동산 종류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으로 주택 소유주가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콘도, 모빌홈, ADU, 듀플렉스, 4플렉스 등을 포함한 4유닛이

하 주택으로 주인이 살고 있어야 한다.

#### 자격

▷주택 모기지: 3월 1일 이전 최소 2차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했고 현재까지 연체 상태여야 한다.

▷재산세: 3월 1일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재산세를 체납했을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한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리버스 모기지를 가지고 있고 재산세 연체와 주택 보험료 연체 됐을 경우 최대 8만달러까지 지원한다.

####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모기지 명세서(Mortgage Statement), 은행 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금 청구서(Utility Bill)와 수입 증명서류 즉, 급여 명세서(Pay stub), 세금보고서(tax return) 또는 실직 관련 서류(unemployment document)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https://cam-mortgagerelief.org/whoiseligibl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른쪽 상단의 'Apply Now'를 통해 할 수 있다.

30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888-840-2594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문의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아마추어 골퍼 점수 올리려면 풀세트 고집 말아야

### 코치, 프로들 3~4개는 버려라 조언 티샷 맞지 않으면 맞는 클럽 사용

풀세트 골프채를 가지고 필드에 나간다고 해서 골퍼를 잘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왔다.

프로 골퍼 코치들은 캐주얼 아마추어 골퍼라면 절반만 가지고 나가도 풀세트 골프채를 가진 사람과 점수차가 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괜히 무겁기만 하고 또 어떤 채를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경기를 망치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 골프협회(USGA)는 경기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골프채를 14개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플레이어들은 숫자를 채워 가방에 넣고 간다.

하지만 코치나 프로들은 절반만 가지고 나가라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14개 풋셋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풋셋을 가지고 나가야 몇 번으로 칠까 고민하게 되고 잘 맞지 않는 채를 사용하게 되며 대개 3~4개 클럽은 사용도 하지 않는다.

#### 골프채 숫자 제한

USGA가 14개 클럽으로 제한한 것은 1938년부터다. 가방에 무려 25개 또는 30개 클럽을 챙겨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USGA 기록에 따르면 경기 감독관들이 지나치게 많은 골프 클럽으로 게임이 거의 기계적으로 되 버리고 캐디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협회가 왜 14개로 클럽 수를 제한했는지, 또는 몇 개의 클럽이 있어야 게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원인이야 어찌 됐던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저 프로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아 14개 클럽을 고집한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역사교수 스티븐 솔로스만 박사는 아놀드 파머가 1번 아이언을 사용하는 것을 TV에서 봤다면 골프샵으로 달려가 1

번 아이언을 산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리드 클럽 역시 필 미켈슨이 그린 근처에서 사용하면서 유행처럼 번졌었다.

#### 고집 센 플레이

2021년 US 오픈이 열렸던 샌디에고 토리파인 골프 코스에서 헤드프로

로 있는 조 드복은 매년 잘못된 클럽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를 많이 본 다면서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제대로 맞지 않는데도 끝까지 드라이버로 티샷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7번 아이언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을 사용해 티샷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점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것은 공을 똑바로 치는 것이며 그러면 점수도 높아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7번, 8번, 9번 아이언, 하이브리드, 페어웨이 우드, 피칭 웨지, 샌드 웨지 그리고 퍼터가 적당하면 잘 칠 수 있다면 드라이버도 사용한다. 많은 프로들이 초보자들에게 6~8개의 클럽 사용은 조언했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 수리비 인상으로 자동차 평균 보험료 2,000달러

**주요 보험사들, “올해 보험료 계속 올릴 것”  
인력 부족으로 수리 기간 길어져 렌트비 부담  
운전기록 유지하고 디덕터블 올리기 대처  
크레딧 점수 반영 주들 많아 관리 필요**

자동차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다가 자동차가 점점 첨단화 되면서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 자동차 렌트비 또한 올라 자동차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놓고 있을 수많은 없다.

지난 3월 자동차 보험료를 전년에 비해 15%나 올랐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비율 5%를 압도한 수치다. 개인 재정도우미 웹사이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평균 연 보험료는 2,000달러다.

불행한 소식은 보험료는 계속 오른다는 것이다.

지난달 ‘프로그램시브’ 보험사의 대표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스테이트 역시 손실 보존을 위해서도 올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과 인건비 인상으로 보험회사의 수리비 부담이 더 높아졌다. 또 정비사 부족으로 자동차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렌터카 대여 기간 역시 길어졌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보험 수리비가 늘어났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소비자 연구회사 JD 파워의 스테픈 크루슨 보험전략 국장은 모든 상황이 종합돼 수리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팬더믹 끝났지만 과속 습관은 여전**  
팬더믹이 물러가면서 많은 차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직장 또는 여행 등의 목적이지만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된다.

로버트 패스모어 ‘미국재산손실 보험협회’ 대표는 과속 운전 등 팬더믹 기간 중 가졌던 나쁜 운전습관들이 도로 사정이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미국 소비자 연맹의 덕 헬러 보험 국장은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운전 기록이 양호한 운전자들에

게 관계도 없는 요인들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 기록이 좋아도 크레딧 점수가 나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점수가 나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소비자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의 운전 기록 좋고 크레딧 점수가 완벽한 운전자의 연 기초 보험료는 730달러다. 하지만 같은 운전 기록이라도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거의 2,10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맹은 이 조항은 빈곤층 지역의 저소득층 운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는 않은 듯 싶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매사추세츠 주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 크레딧 점수를 적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 자동차 보험 쇼핑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컨슈머리포트의 척 벨 프로그램 국장은 한 보험사만 알아보기 말고 여러 보험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수년 동안 한 보험회사만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가격 비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한미보험 같은 오랜 전통의 보험 에이전시에 전화하면 쉽게 저렴한 가격을 찾아준다.

자동차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알아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가격은 뽑기 힘들기 때문에 한미보험 같은 보험 에이전시를 이용하면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 낼 수 있다.

JD 파워가 지난 3월 1,000명가량



의 소비자들을 조사해 이들의 보험 쇼핑은 전달보다 평균 13% 올랐고 보험을 바꾸는 비율은 4% 더 늘었다고 밝혔다. 2022년 동기의 평균 3.6%와 2021년 3.4%보다 늘어났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싼 보험을 찾아 떠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보험이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형 픽업 트럭이나 SUV 대신 승용차와 SUV 중간인 크로스오버를 구입한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또 자동차가 오래됐고 가치도 크게 떨어져 있다면 충돌 보험을 낮추면 보험료도 절약될 수 있다. 충돌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 또 컴프리헨시브 보험은 절도 또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입은 자동차 손상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보험사는 또 주행 거리와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이용해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안전운전 하고 주행 거리도 줄어든다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 크레딧 점수 좋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져

캘리포니아, 하와이, 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크레딧 점수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좋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페이먼트를 제때 하고 크레딧 카드 한계까지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가용 한계가 많아지면 점수는 좋아진다.

신규 크레딧 카드 개설을 피하고 사용액 또한 줄인다. 크레딧 점수는 www.annualcreditreport.com를 통해 1년에 한번씩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CURE 자동차 보험사’는

크레딧 점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런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디덕터블 낮추기

디덕터블을 높이면 보험료도 낮아진다. 그만큼 보험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디덕터블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면 보험료를 약 10% 낮출 수 있다.

### 보험사 정보 연람

주 보험국이 보험사별 서비스 등급이나 보험료 비교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텍사스는 구체적인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매사추세츠 역시 비교 도표를 제공한다. 전국 보험국장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사별 등급과 소비자 불만 사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넷김 기자



##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 저녁까지 제공

- **질 좋은 식사**  
(아침·점심·저녁)
- **간호사·소셜워커·영양사  
상담사 등 상주**
- **IHSS·은행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K - 타운 시니어센터

3400 Olympic Blvd. LA, CA 90019  
**(323)334-4600**

## 크렌셔 커뮤니티 센터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213)201-7700**

Cover story

# 꽃 가꾸고 야채 심고 전원생활 즐기는 은퇴 공간

황근 씨 27만 달러에 1,450스퀘어 모빌 홈 구입  
 ‘앵두나무집’ 만족도는 100점 넘어 “대만족”  
 땅 렌트, 수도세, 청소비 합쳐 월 693달러 HOA  
 99세 이상학 씨, 벌써 34년째 거주하는 ‘터줏대감’

**1면에서 계속**

모빌 홈 주변에 공간이 많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텃밭도 가꾸고 예쁜 꽃들도 심으며 조용하고 정서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안전하다. 젊은 사람이 없는 시니어들만의 공간이어서 시끄럽지 않고 매우 한적하다.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며 이사 올 때 다 버리고 키우던 길고양이, 침대와 식탁, 그리고 3,000여 권의 책만 챙겨 들어왔지만 이웃과 친척들이 가져다준 가구로 황 씨의 모빌 홈에는 훈훈한 인정이 넘친다.

황근 씨는 카슨의 모빌홈타운 ‘콜로니 코브’의 121번째 한인 입주자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한인들이 말해주는 순서다. 한인들이 많다 보니 한인회도 있다.

황 씨의 모빌 홈은 1,450스퀘어 피트에 방 3, 화장실 2로 이곳에서 가장 큰 집이다. 집을 넓히고 개조해 2,000피트 넘는 곳도 있지만 표준 사이즈로는 제일 크다.

구입 가격은 27만 달러. 25만 달러에 나왔지만 경쟁이 붙어 2만 달러를 더 얹어 현금으로 구입했다.

황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며 “30만 달러 정도의 주거지를 찾다가 이곳을 선택하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단지에는 현재 24만~26만 달러에 방 2, 방 2개 크기의 모빌 홈 7채가 매물로 나와 있다. 모빌 홈은 최근 5~6년 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만큼 인기 폭발이다.

열심히 일하며 이민 가정을 꾸렸던 1세대 한인들이 은퇴 대열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 관리가 힘들고 자녀들 떠나 쓸령한 집보다는 아기자기한 시니어 모빌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격이 올라갔다고는 해도 25만 달러 정도로 일반 주택과 다른 것은 안락한 주거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LA와 주변 대도시 지역에서 이 가격으로 이런 사이즈의 집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멀리 라스베이거스



① 모빌홈타운 거주 2년차 황근 씨  
 ② 황근 씨 모빌홈 뒤쪽 화단 모습.  
 ③ ‘콜로니 코브’ 단지 위락 시설에 자리한 수영장. 이곳에 커뮤니티센터와 당구실, 도서관, 자쿠지, 식당들의 편의 시설이 있다.  
 ④ 황근씨가 키우는 길고양이.

즉 모빌 홈에 1,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모빌 홈은 미국 내 거의 모든 도시에 하나 이상은 꼭 있다.

모빌 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8피트, 10피트, 또는 12피트 폭의 알루미늄 컨테이너 한 개 크기의 ‘싱글’형 모델과 이를 둘로 이어 붙인 ‘더블’형 모델이다. 또 요즘은 아예 2층, 3층짜리 모델도 나온다.

**땅 렌트비, 제반 비용 내야**

황 씨는 땅 렌트비와 물값, 청소비를 합쳐 한 달 693달러를 HOA 명목으로 땅 주인에게 낸다. 지난해 입주할 때보다 33달러가 올랐다. 하지만 다른 모빌 홈타운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황 씨는 “남가주 대도시 일대에는 한 달 1,200~2,000달러를 내는 모빌 홈타운이 대부분이지만 이곳은 카슨시 렌트 컨트롤에 묶여 연 4.3%로 인상이 제한돼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20면에 계속

다니며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트레일러 트레시’ ‘게토’ 등 경멸적 단어도 사용됐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동식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아예 고정해 버리는 모빌 홈으로 바뀌었다. 해변가나 휴양지 등 미국 곳곳에 모빌 홈 파크 세워지면서 저렴한 가

격에 멋진 해변과 울창한 산림 속 별장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또 은퇴 대열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저렴한 모빌 홈 확으로 몰려들면서 인기가 상승가를 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700여만 채의 공장 제작 주택(manufactured home),

# 희망 없는 고령의 말기 암 환자에 공격적 치료 많아

**치료의향서 작성하고 가족과 사전 대화 필요  
가망도 없는 암 치료, 환자 고통만 가장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생명 더 단축  
생애 마지막 단계 삶의 질 유지 중요**

많은 노년 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견디기 힘든 공격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환자들이 원치 않는 방법일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 미국 의학협회 발행 월간 저널에 실린 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7월 제니퍼 오브리언은 뉴멕시코 시골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84)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마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앰블란스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브리언은 아칸소 리틀락에서 한 병원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또 죽은 남편은 말기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다.

은퇴 기업가인 아버지 제임스 오브리언은 심장마비와 수십년간 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폐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척추부상으로 보행기를 사용한다. 숨이 가빠 산소 마스크를 이용한 'biPAP'에 의존한다. 그는 심폐소생술 금지와 삽관 금지 지침을 이미 작성한 상태다.

**치료 대신 평안한 죽음**

전화 상으로 병원의 말기암환자 치료 임상 간호사가 오브리언의 아버지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해 줬다. 하지만 오브리언은 단호하게 고집센 아버지에게 “아빠, 심장과 폐가 다 됐어요”라고 말해 줬다.

다음날 아버지는 골반 수술을 거부했다. 이에 놀란 마취과 의사와 정형외과 의사가 딸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의 수술을 설득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오브리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브리언은 “아빠는 죽어가고 있어요. 평안하게 잠들던지 아니면 대수술을 받아 힘들게 죽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수술중 감염 등등 후유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고 냉정하게 거절했다.

골반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호전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다.

오브리언의 아버지 제임스의 의식은 또렷하다. 아직 인지장애는 없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 지역 호스피스 서비스에 연락해 죽음을 준비하도록 했다.

**대부분 공격적 치료 받아**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 연구팀은 5년간의 암환자 등록, 양로원 평가, 메디케어 비용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노년 전이성 암 환자 14만 6,000명의 ‘말기 공격적 치료’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렸다.

연구 팀을 이끈 시란 코로우키안 연구원은 “죽기전 30일 간의 양로원 환자 치료와 집 등 양로 시설이 아닌 곳에 사는 환자를 비교해 봤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암 치료, 반복적 응급실 입원, 중환자실 입원, 호스피스 등록 부족 등 공격적인 치료에 대해 조사했다. 공동 저자인 사라 더글라스 암전문 연구원은 “모든 가능성으로도 이들 환자들은 호스피스를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양로원 입원 환자의 64%와 자신의 집 등 양로원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환자 58%는 죽기 30일 이내에서도 공격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중 4분의 1은 고통 속에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 온갖 암치료를 받다 죽었다.

대부분의 환자가 집에서 죽고 싶어 한다. 집에서 사는 환자 25%와 양로원 입원 환자 40%는 결국 병원에 실려가 죽는다.

**가망 없는 집중 치료**

암 말기에 가망도 없는 집중 치료를 막기 위해 호스피스, 말기암환자 치료



전문가들, 의료개혁 주창자들, 환자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동안 다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글라스 암 전문의는 “이런 공격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더 빨리 죽으며 생애 말기에 형편없는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 또 가족들도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술 또는 수주동안 가망도 없는 공격적인 치료가 강행되는 이유는 있다.

일부는 의료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된다.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와 어려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또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더글라스 전문의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 환자들은 ‘나를 포기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작성한 사전 의료결정서와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주 문서’(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도 항상 공격적인 치료를 막아주지 못한다.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될 때 환자와 대리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곤 한다.

존김기자 26면에 계속

## US METRO NEWS



### The best media to reach Korean Seniors

REAL INFORMATION FOR REAL LIFE  
MONTHLY WELL BEING GUIDE

US METRO NEWS (323)620-6717  
www.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

건강

# 췌장암 흔하지 않지만 조기진단 어려워 치명적

10명 중 1명 만 5년 생존하는 무서운 질병  
흡연, 폭음, 제2 당뇨병, 췌장염 등 원인 꼽혀  
갑자기 혈당 높아지고 약으로 조절 어렵다면 위험  
유전 요소도 있으므로 가족 병력 있다면 주의

암 중에서 췌장암이 가장 무섭다고 들 한다. 초기 진단도 어렵고 또 치료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침묵의 병’ (Silent of disease)이라고도 부른다. 복부 통증과 체중 감소를 포함한 증상들이 이미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조직으로 번진 후에나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최근 수년사이 췌장암 진단이 80%나 넘는다는 암울한 데이터도 발표됐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다. 개인 면역 체계에 특화된 췌장암 치료제 겸 백신이 임상실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은 췌장암 환자의 절반은 재발되지 않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준다.

대법원 판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존 루이사 연방 하원의원, TV 인기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의 진행자 알렉스 트레벡,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췌장암이었다.

췌장암은 다른 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망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현재 추세라면 2040년까지 암 관련 사망 원인의 두번째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전체 암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7%가 췌장암이다. 또 5년 생존율은 10명 중 한명 꼴이다.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초기에 우연히 수술이나 복부 스캔을 하다가 암 세포가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이다.

보스턴 대나 파버 암연구소의 소화기 암센터의 브라이언 월핀 센터장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암인데다가 체중 감소, 피로감, 복부 통증 등 일반적이고도 이런 증상은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잘 감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월핀 센터장은 내방하는 환자의 80%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 췌장암 위험 요소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두배로 높이며 모든 사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비만과 허리둘레의 과도한 체중 몰림 현상 역시 위험을 높인다.

허리 둘레가 굵어지면 제2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 췌장암 위험도 함께 상승한다. 또 폭음과 흡연은 췌장의 염증을 유발하며 드라이클리닝, 금속산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직종 근로자 역시 주의해야 한다.

나이 또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췌장암 환자의 3분의 2는 65세 이상이며 가족력도 매우 중요하다.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되는 BRCA1 또는 BRCA2 유전인자의 돌연변이가 유전되는 경우도 있다.

## 당뇨병과 초기 증상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은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발병한 장기나 조직에 국한돼 아직 번지지 않은 단계를 말한다. 췌장은 작은 당근 모양의 장기로 길이 6인치, 폭 2인치가량으로 갈비뼈와 위장사이에 숨겨져 있다.

췌장 초기 암은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초기 경고 사인으로 당뇨병을 꼽는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시작된다. 췌장내 세포가 혈당을 통제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생산한다. 아직 확실하게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는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막 시작된 제2형 당뇨병은 췌장내 숨어 있는 암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보고 있다.

텍사스 대학 앤더슨 암센터의 수리시 차리 박사가 2005년 미네소타 로체스터 주민 2,122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 3년 이내에서 췌장암 발생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6~8배 높인다.

차리 박사는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과 함께 당뇨병 환자의 암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UCP-1 유전인자를



## 췌장암 발생 부위와 증상

머리 황달, 짙은 소변 몸통 등쪽 통증  
꼬리 특이 증상 없어 특히 늦게 발견됨

## 췌장암 고위험군

- 당뇨병으로 20년 이상 투병
- 갑자기 당뇨병이 생긴 고령자
-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됨
- 직계 가족 2명 이상 췌장암 발생

## 췌장암 완치 장기 생존자 특징

- 1 전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 2 낙천적이며 투병 의지가 강하다
- 3 치료 중에 식사를 잘하고 영양을 잘 유지한다
- 4 다른 질환이 없다
- 5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돕는다

## 췌장암 현황

한 해 8099명 발생,  
한국인 암 발생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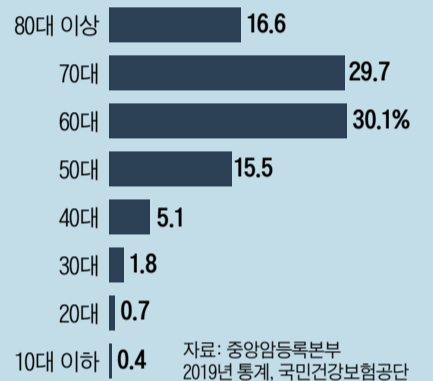
생존율 13.9%,  
10대 암 중 퇴져,  
폐암은 34.7%

진단 시 수술로 제거될  
가능성 10~20%

조시 진단 방법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MRI

## 췌장암 연령별 분포

2020년 기준, 단위: %



자료: 중앙암등록본부  
2019년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별해 내기도 했다.

또 가장 최근 뉴질랜드의 한 췌장 전문의는 제 2당뇨병 환자 또는 췌장염 환자 14만 명을 18년간 관찰한 결과, 췌장 염증이 발생한 후 생긴 당뇨병 환자는 제2 당뇨병 환자보다 암 발생률이 7배 이상 높았다고 밝

혔다.

## 체크리스트

혈당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당뇨약을 복용해도 당 조절이 어렵다면 주위해야 한다.

또 당뇨 환자가 다이어트 또는 운동

을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지도 주시해야 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70대 초반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를 모른다면 주위해야 한다고 월핀 센터장은 조언했다.

존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 췌장암 막아주는 백신 길 열어

### 환자 절반 재발 막아

췌장암 환자 50%의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제 겸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독일 회사 ‘바이오앤티크’ (BioNTech)의 연구팀은 각 환자들의 독특한 유전인자 mRNA에 맞는 백신을 개발했다. 환자 맞춤형인 이 백신은 각 환자들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췌장암 세포를 파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뉴욕시의 췌장암 환자 16명에게 백신을 투여한 결과, 절반의 환자는 18개월이 넘

도록 암세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백신은 각 환자의 mRNA에 맞도록 제작된 맞춤형 백신이다.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 케터링 암 센터는 16명 환자의 암세포 샘플을 떼어내 독일 ‘바이오앤티크’으로 보내 채취된 샘플의 단백질을 분석하도록 했다.

이 백신은 코비드 백신 처럼 메신저 RNA(mRNA)가 환자의 면역계에 췌장암세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다.

이번 임상 실험은 불과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돼 성공률은 절반인 8명에 그쳤다.

실험 데이터가 너무 작지만 8명

은 18개월이 지나도록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환자들이 화학요법과 기타 암 치료제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 백신만으로 이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나머지 절반은 백신 투여 후 1년가량 지나 암이 재발했다.

연구를 주도한 존 흡킨스 의과대학의 췌장암 전문의 니하 자이디 교수는 백신은 맞춤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 아직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트러스트내 부동산 팔려면 신탁관리자 승인 필요

(trustee)

신탁 관리자는 트러스트내 재산 관리자 역할  
관 돈은 트러스트 또는 새 트러스트 개설해 입금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신탁개설자가 재산권 행사 가능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베니피셔리의 동의 받아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 드로 양로원 혜택을 받기 위해 트러스트를 개설하고 여기에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신탁해 두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죽는 순간 베니피셔리(수혜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로 사용했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 메디케이 드 신청때 신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복 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은 재산도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심사의 자산에서 제외시킨다(본보 5월호 기자 참조).

그런데 도중에 트러스트에 넣어 둔 주택을 팔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팔 수” 있다. 또 판돈을 다시 트러스트에 넣어둘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트러스트에 있는 집을 팔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 트러스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 트러스트란

트러스트는 누군가를 위해(베니피셔리) 재산을 대신 맡아 두도록 설계된 법적 독립체를 말한다.

빚쟁이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또 어린 자녀 또는 손주들 등 베니피셔리가 일정 조건을 충족(정신차려 공부를 잘하는 등등) 역할을 할 때까지 재산을 맡겨 두는 등등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요즘은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메디칼)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공증 법원’(probate court)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사후 아무런 문제없이 재산이 베니피셔리에게 넘겨지는 역할도 한다.

트러스트는 신탁 설정자(settlor, trustor 또는 grantor라고도 부름)에 의해 개설된다. 설정자는 재산권을 신탁 관리자(trustee)에게 위임

한다. 이 신탁관리자는 트러스트에 명시된 베니피셔리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책임과 의미를 다해야 한다.

### 트러스트의 종류

트러스트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 반복 가능한 트러스트): 언제라도 트러스트를 설정자(settlor)가 바꿀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

②일리보커블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s, 반복 불가능한 트러스트): 설정자가 내용을 바꿀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다.

③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s): 설정자의 생존 기간 개설된 트러스트로 앞서 설명한 리보커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이에 해당된다.

④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s): 리빙트러스트와는 달리 설정자가 죽은 후 유언에 따라 설정되는 트러스트다.

###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집 팔기

우선 집을 팔려면 신탁 관리자 즉, 트러스티에 연락해야 한다. 트리스티는 앞서 설명한 대로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 내역에 따라 판매 절차를 알려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탁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트러스트에 있는 집을 팔 수 있다.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신탁관리자와 설정자(settlor)가 동일인일 수 있다. 다시말해 트러스트를 개설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직접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신탁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집을 마켓에 내놓고 바이어를 찾는다.

집을 구할 바이어가 나타난다면 가격 흥정을 하고 가격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매매 계약서에 신탁관리자와 바이어가 서명해야 하고 절차가 끝나면 신탁관



리자는 바이어에게 주택 소유권 증서를 넘겨준다.

신탁관리자는 트러스트에 적혀 있는 베니피셔리에게 서면 설명서를 보낸다.

### 반복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

반복 가능한 트러스트의 주택을 판매한다면 신탁 개설자가 언제라도 트러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신탁 개설자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면 트러스트 관리자(신탁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바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탁 개설자가 아직 살아 있고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팔

기로 했다면 신탁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신탁 관리자가 집을 팔아 남은 이익금을 신탁 개설자가 죽을 때까지 신탁 개설자에게 이전해 주고 개설자가 직접 집을 판 후 남은 돈을 새로운 트러스트에 넣어둘 수 있다.

### 반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

부동산이 반복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묶여 있다면 신탁 개설자는 트러스트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만약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베니피셔리(수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신탁 관리자는 다음 2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 이름이 올려진 모든 베니피셔리의 동의를 얻어 신탁 개설자에게 명의를 넘겨준다. 개설자는 명의를 받아 집을 팔 수 있다. 집을 되찾아 직접 파는 것이다.

▲부동산을 트러스트에서 직접 판다. 신탁 개설자는 이익금을 트러스트 계약내용에 따라 베니피셔리에게 나눠준다.

만약 불안하다면 상속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변호사가 이미 작성된 트러스트의 내용을 검토해 법률적 해석을 도와준다. 또 트러스트 내용대로 판매되는지도 점검해 준다. 물론 법적 서류나 혹시 법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 US메트로뉴스

종이신문과 인터넷의 장점을 접목하여 정보읽기의 효율성과 독자의 편의성을 높인 뉴스 서비스입니다.

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

## CAR

## 자동차 시장 올 가을에나 돼야 다소 완화될 듯

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의 30~60% 차지  
생산 여건 개선 안돼 제작사들, 고급차에 올인  
팬더믹 2년간 제작사들 이익 극대화 방안 찾아  
딜러 덧붙이기, 패키지 강매까지 가격 상승 부추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즈니스 폐쇄 조치 이후 자동차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은 그 2년동안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중이다. 자동차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자동차 시장은 정상 회복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자동차 시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초 국제 운송 문제와 반도체 부족, 공장 폐쇄 조치와 자동차를 찾는 인구의 급증까지 가세해 차 가격은 급속히 뛰어올랐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공급망이 복원되면서 가격 완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의 이자율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되는 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 가격 아직 불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여건이 맞지 않아 자동차 생산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 비싼 모델 생산에 집중하고 있고 싼 가격대의 자동차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

중고차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올 4월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T로우 플라이스의 브레리나 우리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은 부드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거친 자갈길을 가게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우리치 수석은 “가장 큰 공급증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예전처럼 서로 가격 경쟁을 벌이던 시기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 고급차, 딜러 폭리 가세

팬더믹 이전 자동차 회사들은 수요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싼값에 들어오는 수입차들과 경쟁했다. 딜러들은 박리다매로 이익금을 남겼고 자동차 대출 이자율로 큰 이득을 챙겼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공장들이 폐쇄됐다. 다시 문을 열었더니 이제는 반도체가 문제가 닦혔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부족한 반도체를 고가의 트럭과 SUV 모델 생산에 집중해 그동안의 이익 손실을 보충하고 있다.

딜러 들까지 합세했다. 일반 판매 가격보다 수천달러를 더 붙여 판매한다. ‘바가지’ 요금이다.

연방노동부의 마이클 헤블린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바가지 요금은 2019~2022년 신차 소비자 전체 인플레이션의 35~62%에 해당할 정도다. 딜러들은 판매가 줄어들어도 서비스 패키지를 팔아 수입 밸런스를 유지한다.

#### 수요 계속 늘어

갑자기 차가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이 최악의 상황이다.

지안여름 피츠버그에 사는 헤일리 코트(29)는 저임금 식당과 농장일을 그만두고 시간당 25달러의 주택 청소 비즈니스를 열었다. 그런데



2005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망가져 차가 필요했다.

원하는 중고차가 가격은 값싼 새 차 가격과 비슷하다. 그녀는 2022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구입했다. 월 페이먼트는 500달러다. 여기에 보험료 월 200달러가 추가된다. 연료비와 유지비까지 합친다면 한달 아파트 렌트비와 맞먹는다. 저축이나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

자동차 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생산이 더 늘어나면서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동차 공급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가 부족했을 때 누려온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생산 목표를 바꾸기 시작했다. 고급차다.

#### 제한적 중고차 시장

공급 부족 요인은 또 있다. 3년 리스 후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반납 차량이 크게 줄었다. 2020년 봄 리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를 돌려주

지 않고 아예 차를 사버렸다. 3년전 가격이므로 매우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수년동안 자동차 부족으로 고생했던 렌트 회사들이 경매까지 불사하며 공격적으로 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자동차를 포함해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급속히 올렸다. 그러나 자동차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고통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돼 버렸다.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새 자동차의 평균 페이먼트는 2023년 1/4분기 736달러다. 2년전에는 585달러였다. 중고차는 월 523달러로 2년전 동기 대비 110달러 올랐다.

#### 모든 자동차 가격 올라

자동차 시장은 현재 양분돼 있다. 고급차와 저렴한 자동차 시장이다. 중간이 무너졌다. 지난 2년 여 동안 충분히 돈을 모은 부자들은 고금리에 도둑덕 없이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일부는 현금으로 차를 산다. 일부는

2022년 부풀려진 가격에 주문했던 차를 그대로 받고 있다.

낮은 가격대의 자동차 경쟁도 만만치는 않다. 돈이 없어도 자동차를 꼭 사야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와 같은 분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라도 차는 필요하다.

돈이 충분하지도 않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은 차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자동차 도매가격은 가을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제작사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블루북 데이터는 지난 2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기차 가격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자동차의 반도체 시장이 완화된다고 해도 자동차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존김기자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의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http://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 골반 골절 환자 25~30%는 사망까지 이른다

**뼈 건강 유지하고 낙상 위험 줄이고  
칼슘, 비타민 D, 정기적인 운동 필수  
골다공증 검사해 자신의 상태 알아야  
뼈 골절 경험 있다면 위험 요소 증가**



### 누가 고관절 골절 잘 걸리나

- ▶ 갱년기가 끝난 50~60대 이상 여성
- ▶ 마르고 키 크며 가족력 있는 사람
- ▶ 칼슘·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사람
- ▶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 ▶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 복용자

###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 ▶ 넘어지지 않도록 평소 조심히 걷는다
- ▶ 산책, 자전거 타기로 하체를 튼튼히
- ▶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
- ▶ 비타민D가 풍부한 생선류를 섭취
- ▶ 골밀도와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

그레픽 유제일

골반 골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50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이 들어 골반 골절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뉴욕 타임스는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도했다.

홍콩 연구진은 지난달 초 2005~2018년 골반 골절을 경험한 50세 이상 성인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2050년 세계적으로 골반 골절상을 당하는 사람은 두 배나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특히 노년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 뼈 건강 지키기

골반 골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뼈 건강이 좋지 않아서다.

골절의 절반 이상은 골다공증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골다공증이란 골 밀도가 낮아지는 병이다. 미국인 1,000만 명이상이 해당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나 치료도 받지 않는다.

앨라배마 버밍햄 공공보건대학의 닐 라이트 임상역학과 교수는 “매년 골반 골절상을 당한 사람들의 25~30%는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 충분한 칼슘 섭취

칼슘은 우리 생활에서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다. 어린이, 10대, 젊은 층은 강한 뼈를 만드는데 칼슘이 필요하다. 젊어서 단단해진 뼈는 나이 들어 직접 뼈 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25~30세 언저리에서 가장 단단한 뼈를 형성하다가 60세부터, 또는 폐경기 이후부터 골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30세가 지나서도 칼슘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다양한 신진대사를 위해 칼슘을 사용하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부족하면 뼈의 칼슘을 사용하게 되므로 골 밀도가 줄어든다. 일상 식품에서 가장 좋은 칼슘 섭취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다. 알몬드, 강화 시리얼, 콩우유도 좋은 옵션이고 강화된 오렌지 또는 애플 주스 역시 좋다.

하루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 3~4개는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장량의 칼슘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보조제를 먹으면 된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지는 않는다. 45세 이상 성인이나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의 결석 즉, 신석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과하면 해가 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칼슘을 2,000밀리그램 이상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 비타민 D 섭취

비타민 D는 또 다른 뼈 영양소다.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준다. 전국의 학회학회에 따르면 1~70세의 하루 섭취량은 600 국제단위(IU) 이상이며 70세 이상은 800 IU이 권장량이다.

연어, 정어리, 유제품, 강화 주스 등에 풍부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식품에서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800~2,000 IU의 보충제를 권하지만 우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보충제가 아니라라도 1주일에 4~5회씩 하루 30분가량 햇볕을 받는 것도 비타민 보충에 좋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외출이 줄어들어 겨울에는 보충제 섭취가 적극 추천된다.

### 일어선다

강한 뼈를 유지하려면 걷기, 달리기 등 정기적인 운동이 절대적이다.

걷기는 몸무게를 이용한 신체 단련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또 근육을 키우고 몸의 균형을 유지

해 낙상이나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다리와 발, 골반뼈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항상 움직이는 것이 좋다. 물론 근육 강화 훈련도 필요하다.

미국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최소 2일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위험 요소 제거

칼슘과 비타민 D, 운동과 더불어 뼈를 약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버린다.

하루 2잔을 초과하는 커피 또는 술은 뼈 건강에 해롭다. 또 흡연 역시 골 밀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맨발 또는 고무 달린 신발, 슬리퍼를 신는 것이 미끄러움을 방지해 낙상을 막는다. 또 잠자리에 들거나 한밤중에는 미세 등을 켜놓고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밤에는 이동하지 않는다. 지팡이와 워커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젠이 줄어들어 나이 든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 증상이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산다.

### 위험이 높다면 의사와 상의

65세 이상 여성 또는 70세 이상 남성은 골밀도의 엑스레이 측정 검사가 권고된다. 하지만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일찍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과거 자동차 사고 또는 낙상으로 뼈가 부러졌거나 부모님이 골반 골절 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위험이 더 크다. 혹시 1년에 최소 2인치 키가 줄었다면 뼈 밀도가 낮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척추가 내려앉았다는 증거다.

당뇨병이나 복강 질환 셀리악병이나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어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 장기간 관절염이나 면역 문제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어도 위험은 높아진다. 이런 경우 담당의에 골밀도 검사를 요청한다. 자넷김 기자

# 대학생 40% 심각하게 학교 그만둘까 고민중

## 대학간 자녀들 정신건강 문제 심각 수준 압박 가하지 말고 휴식, 안정, 치료 병행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입시는 시작된다. 4년 동안 학업과 과외활동을 위해 부모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시도 때도 없는 마찰을 겪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학 문을 넘어서는 순간 부모들은 자녀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끝났다”란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 그런데 정말 끝났을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는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도 포함된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1. 왜 대학생들이 힘들까?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 난생 처음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잔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났으니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얼마 가지 못한다.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 수업이 그리 만만치 않다. 특히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같은 소년위 클래스의 경우 교수와 함께 토론식 수업이 많다. 자신의 의견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발표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내성적이거나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

게다가 각 교수들이 내주는 과제 양도 많아 며칠 또는 일주일 이상 때 달려야 한다.

여기에도 학생들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학교 문화 역시 대학생 자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주로 주말에 벌어지는 많은 파티들이 낯설 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각기 다른 성격의 친구

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질감으로 인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성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술과 마약의 유혹 등 여러 위험 요소들이 때론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함께 막상 대학에 입학해 자신이 원했던 전공을 공부하면서 잘못된 선택이었을 알게 됐을 때 진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나 장래, 전공 등으로 인한 고민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숨긴다는 사실이다. 즉 자녀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부모에게 일찍 털어놓는다면 그만큼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 2.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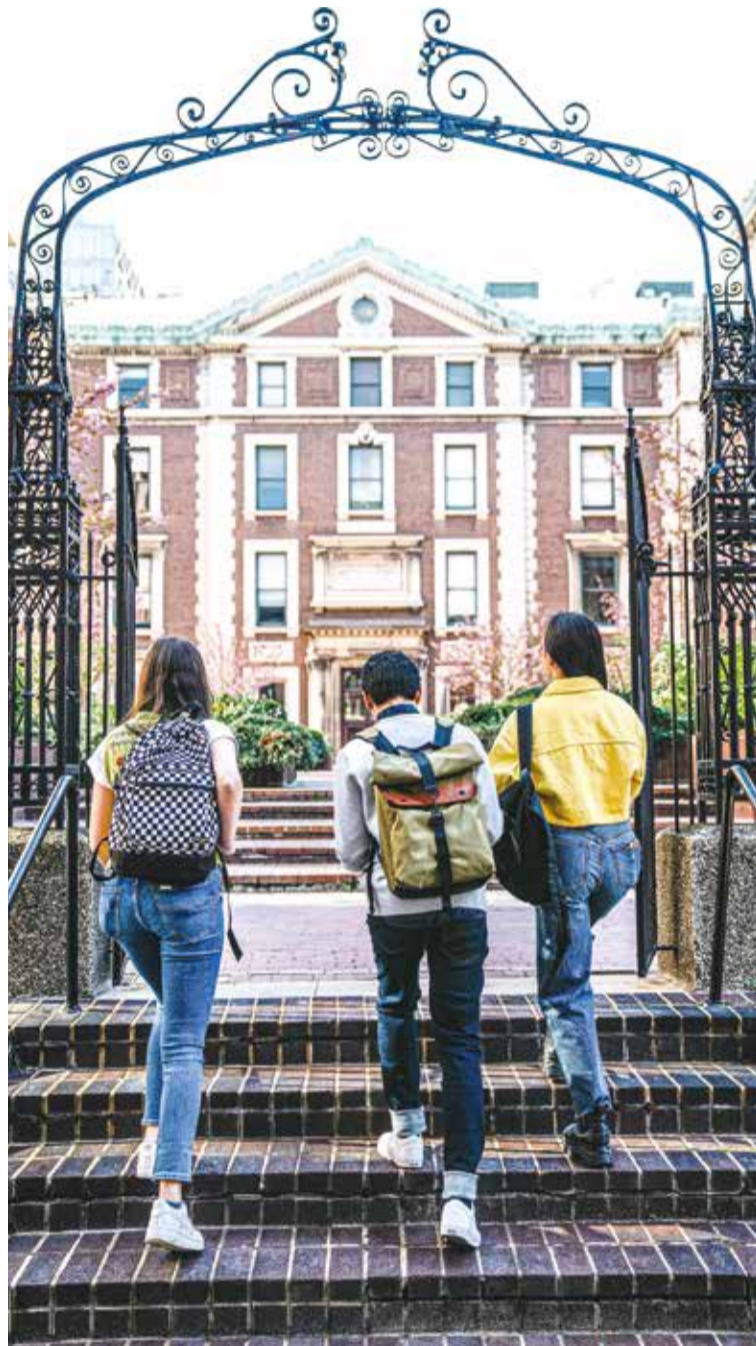
얼마 전 켈럽과 루미나(Lumina)재단이 아직 대학생 신분인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5명 중 2명이 자주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대학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 40% 이상이 설문조사 전 지난 6개월 동안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팬데믹 시작 첫 해에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 중퇴를 고민했던 학생들은 재정문제나 학업이 아닌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정신 건강을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대학생 때의 시기가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취약할 때라며, 대학 입학 후 마주하는 많은 변화들은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층 정신 건강 연구 기관인 헬시 마인드 네트워크 조사관인 사라 린슨 보스턴 대학 조교수는 “일생에서 대략 75%의 정신 건강 문제가 20대



중반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 시절은 역학적으로 매우 정신 건강이 취약한 시기”라고 말했다. 린슨 조교수는 또 “대학 진학을 통해 얻게 된 자율성과 의사 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겪으면서 정신 건강 문제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8~24세 젊은 층의 절반이 불안과 우울증을 증상을 보고했다. 이는 전체 성인의 3분의 1이 유사 증상을 보고한 것과 비교된다.

이밖에 헬시 마인즈 네트워크(Healthy Minds Network)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7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수치심의 소용돌이(Shame spiral)

대학 생활에 자신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위험 신호가 커졌음을 인지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인 많은 대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과 공포,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런 혼란과 혼동의 시간 속에서 다른 동급생이나 후배들이 먼저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학 입학 전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깨지고, 계획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남들 보다 뒤쳐지는 모습에서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를 ‘수치심의 소용돌이’라고 한다.

###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자녀의 이런 정신 건강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에 적극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전히 졸업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이나 설득 대신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즉 한 학기 또는 일년의 휴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휴학은 미국 대학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에게 결코 창피한 일도 아니다.

여기에 더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나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능동적인 자세는 오히려 자녀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비록 기대했던 시간이 늦어졌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대학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상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침체돼 있거나 우울한 모습을 보일 때, 성적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대학은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내지 않는다), 불안 증세, 학교 생활이나 대외 관계가 전과 다르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부모와의 소통을 피할 때,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녀가 하는 말들을 항상 귀담아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안에 뭐가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고, 때론 자신이 지금 힘들다는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항상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립 기자

# 뺑소니 사고 당했을 때 쫓아가야 할까?

##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최근 들어 뺑소니 사고 피해로 문의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손님 가운데 한 분은 뒤에서 받은 차가 서지 않고 도망가기에 몇 블록을 쫓아가는 추격전을 펼친 끝에 상대방 차 번호를 외운 뒤에야 추격전을 멈춘 적이 있고, 다른 손님은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한 뒤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급히 도망가는 상대방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도망가는 차의 번호판을 찍어오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한 분들이 모두 여자요, 어머니라는 사실이다. 진정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위 사례처럼 꼭 추격전을 벌이거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상대방의 차 번호를 알아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무보험자(UM: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사용하여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 수리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Collision)’을 통해서 하면 된다.

사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운전자의 경우, 힘들게 가서 잡아봐야 무보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망가는 이유가 보험이 없기 때문인데, 보험 받으려고 굳이 잡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상대방이 무보험자인 경

우에도 UM을 사용하고, 뺑소니를 당해도 UM을 사용하는데, 굳이 위험하게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UM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이 꼼꼼 없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한 카이로 프랙터 병원 직원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UM이 없어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보험 커버리지를 꺼내 UM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덧붙이자면, UM 커버리지는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나 브로커(중개인)이 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할지 여부를 꼭 물어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뺑소니를 당했을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찰리포트다. 뺑소니 사고에서 경찰리포트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내가 잘못해서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치를 도망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경찰리포트인 것이다.

경찰리포트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직접 하면 된다. 하지만 LAPD 같은 경우 사람이 앰블런스가 출동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가 아니면 출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

찰서를 찾아가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대신 온라인으로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DMV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리포트(SR-1 Form)하는 것도 필요하다. DMV 리포트는 사고 당시 내가 유효한(valid) 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상대방의 신원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자료이다. DMV 리포트는 구글에 ‘SR-1 Form’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나면 경황이 없을뿐더러 위 절차를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 213-700-3159

###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 메디케이드

### 6면에 계속

만약 일시불로 받는 옵션을 선택한다면 펜션은 자산에 포함된다.

### 지불금

전통 IRA나 401(k)는 구좌에 돈을 집어넣고 무한정 불러 나갈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만큼의 돈을 찾아 써야 한다. 이를 RMD라고 부른다.

IRA나 401(k)를 자산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라고 해도 돈을 찾기 시작하면 자산에서 제외시켜주는 주들도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 지불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수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위한 수입 기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로 RMD 나이는 2033년부터 75세로 더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73세로 늘어났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을 까봐 돈을 찾지 않는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 로스 IRA

로스 IRA는 세금을 내고 난 후 순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플랜이다.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어난 이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고 아예 찾지 않고 모아뒀다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따라서 로스 IRA는 RMD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금 규정도 없다. 다시말해 로스 IRA는 IRA를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주라고 해도 메디케이드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결혼 상태

결혼한 부부의 자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동 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결혼을 했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 이름으로만 된 은행 구좌가 있다고 해도 공동 자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그러나 이를 제외해 주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는 비신청 배우자의 은퇴 플랜을 메디케이드 신청 배우자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말이다. 반면 뉴욕과 같은 주는 돈을 찾기 시작해야만 자산에서 제외시켜준다.

콜로라도 등은 신청자나 비 신청자 배우자 모두의 은퇴 플랜을 자산으로 계산한다.

김정섭기자

## 모빌홈

### 12면에서 계속

미국 평균 땅 렌트비는 월 200~300달러이지만 해변이나 산속, 부대시설이 좋은 곳은 땅 대여비까지 합쳐 1,500달러를 넘는 곳도 많다.

그래도 아파트 렌트비보다 훨씬 싸다.

황 씨의 모빌홈 타운은 3가지 모형이다. 황 씨의 1,450스퀘어피트와 중간형 1,050스퀘어 피트, 그리고 제일 작은 800스퀘어 피트.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집을 개조하고 늘려 2,000스퀘어 피트가 넘는 곳도 있다.

집 옆 공간에 탁구대, 당구대도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집을 철거하고 새 모빌홈을 들이는 한인들도 있다.

새집을 들이거나 개축하면 재산세가 달라진다.

황 씨의 모빌홈은 자동차로 분류돼 DMV에 매년 70여 달러의 등록비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개축하거나 새 모빌홈을 구입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카운티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빌홈은 일반 자동차와 같이 등록세만 내면 됐지만 1979

년 법이 바뀌어 1980년 7월 1일 이후 새로 제작 판매된 모빌홈은 자동차 등록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전의 모빌홈은 자발적으로 자동차 등록세에서 재산세로 변경할 수 있지만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

### 99세 입주자 이상학 씨

황 씨의 모빌홈 타운에는 한인 ‘터줏대감’이 있다. 1989년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에 입주한 이상학 씨다. 그의 나이는 만 99세. 아직도 운전을 하고 다닐 정도로 정정하다. 한인타운에서 부동산업자로 또 한인회 임원으로 열심히 활동해 온 이 씨가 1989년 은퇴를 선언하고 모빌홈 타운으로 이사했다. 주변에서는 “이상학이 망했구나”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모빌홈은 “돈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학 씨는 “그때는 여기가 은퇴자들의 천국이었다”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1주일간 여행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최고의 시니어타운”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정섭기자 john@usmetronews.com

# 수표, 우체통에 넣어 보내면 사기 범죄 위험 높아

금액, 수취인 지우고 새로써 돈빼는 범죄 급증  
가능하면 온라인 이용하고 우체국서 직접 발송

“아직도 수표로 공과금을 내고 있다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편과 관련된 수표책 사기가 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재무부 산하 ‘재정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이 각 은행에 보낸 경고 서한이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표를 사용한 공과금 납부가 지난 수십여년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체통을 이용한 수표 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CEN은 2022년 은행이 보고한 수표 사기건은 2021년 35만 건에서 68만 건으로 거의 두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방우체국 수사국은 지난 2020년 3~2021년 2월 우편 절도 신고건수가 29만 9,000달러 이상

으로 전년 동기보다 161% 늘어났다고 밝혔다.

FinCEN이 주목하는 범죄 중 하나는 ‘수표 세탁’(check washing) 방법으로 범죄자들은 서명된 수표를 우체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꺼낸 후 메니큐어 제거용액을 사용해 수표에 적힌 금액을 지우고 수취인 이름도 지우는 수법이다. 범죄자들은 수취인과 금액을 멋대로 적어 놓고 이를 책캐싱한다는 것이다.

전미노인협회(AARP)는 최근 회원들에게 이에대한 경보를 발령했다. 아직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특히 저소득 시니어들은 수표를 사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애틀랜타 조지아대학의 사이버범죄 연구 그룹의 범죄학 교수 데이빗



피해 당했다면 즉시  
은행, 경찰, 우체국에 신고  
수표 세탁 범죄 당했다면  
은행에서 보상 가능

메이몬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주택 메일 박스에서 훔친 수표로 채워심을 하던 것이 이제는 아예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담하게 변했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세탁된 수표를 온라인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 또 우체국 우체통을 열수 있는 마스터키를 복사해 판매하고 있다. 우편배달부를 총으로 위협해 열쇠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 직원이 연루되기도 한다. 일명 불법 거래 웹사이트를 감시하는 메이몬 박사는 “정교한 먹이사슬과도 같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필라델피아의 로렌스 브랜든은 최근 이런 수표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보험료로 57.50달러를 수표로 보냈다. 그런데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금액이 4,950달러로 적혀 있었다.

올해 80세인 그는 “확실하게 그런 돈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은행인 ‘시티즌뱅크’에 신고해 12월 클레임 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돈을 회수하지 못해 저축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필요한 경비를 쓰고 있다.

### 수표 사기 급증 이유

팬더믹 동안 경기 부양 수표와 기타 팬더믹 지원금을 가로챈 범죄자들은 이런 지원금들이 사라지자 이제는 개인 수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국은행협회의 펄 벤다 수석 사이버시큐리티 부회장은 밝혔다.

그는 특히 우편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0년 우체국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체국 마스터키 관리 통제 가 분실 또는 절도 위험이 증가하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절도범은 개인 수표뿐 아니라 비즈니스 수표까지 노리고 있다. 또 세금 환급 수표나 정부 배니핏 수표까지 위조하고 있다.

수표를 물리적으로 세탁한다고 해도 책캐싱이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수취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비즈니스 수표의 경우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은행 계좌를 오

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체국 수사국은 우체국의 협조로 우체통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우체통에서 범죄자들이 우편물을 꺼내기 어렵게 쇠톱을 장착한 ‘갈퀴’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해 범죄 예방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수사국 대변인은 밝혔다.

-수표 세탁 방식으로 빠져나간 돈  
이내 책임인가

“아니다” 은행협회의 벤다 수석은 이런 사기나 위조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 고객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전체 금액을 다시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주에 따라 피해 고객은 최근뱅크 스테이트먼트 일자로부터 30~60일 동안 자신이 발행하지 않은 수표를 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신고된 사기에 대해 조사해 누구의 잘못인지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다시 손실된 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객들은 수사 기간 중 예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발행지 ‘아메리칸뱅크’는 지난해 작은 은행들은 큰 은행에서 절도된 수표에 대한 기금 지불을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질질 끌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표 발송을 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다. 브랜다 수석은 “수표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산 온라인 페이먼트 방식을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꼭 수표를 보내야 한다면 직접 우체국을 찾아 직원에게 주거나 우체국내 로비의 우편통에 넣어야 한다. 일반 길거리 우체통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면 우편물 수거 시간에 맞춰 넣는다. 하루 밤 우체통에 넣는 것도 위험하다.

집 우편 수거함에 넣어두지 말 것이며 수거함의 깃발을 올려 우체부가 픽업할 수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보고 절도범들이 수표를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수시로 뱅크 밸런스를 점검한다.

-수표 세탁 범죄를 당했다면  
은행에 빨리 연락하고 우체국 수사국에 신고한다. 또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넷김기자



Lic #0i99095

**소셜연금  
메디케어  
건강보험  
은퇴플랜**

**무료**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섭**

Wilshire4525@hotmail.com  
**(323)620-6717**

# 줄임말로 읽는 세상



김연신의  
천 냥 빚을 갚아주는  
영어 한마디

건강 검진 결과에 SOB: NA라는 글자가 보였다. SOB는 비속어 Son of a Bitch의 줄임말인데 그게 내 건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Shortness Of Breath: Not Applicable(호흡곤란/숨 가쁨: 해당 없음)이라는 뜻이었다. hi-res vid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Hawaii-Reservation Very Important Day? 한참을 생각했다. High Resolution Video(고화질 영상)를 보내달라는 소리였다. 이렇게 우리는 줄임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때로는 제멋대로들 줄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줄임말들은 알아두는 게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최근 유행하게 된 줄임말들 위주로 살펴보자.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줄임말은 단연 FOMO다.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포모 증후군', 다들 누리는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포모"라고 읽고 일반 대화와 문자 등 여러모로 자주 사용한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다들 멋진 경험을 하며 사는 것 같으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FOMO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작가 패트릭 맥 기니스가 2004년에 하버드 경영 대학원 잡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FOMO를 처음 썼다고 기록됐다.

ICYMI는 In Case You Missed It의 약자로 타인이 놓쳤을 수도 있는 정보를 알려줄 때 사용한다. ICYMI: Check out more photos from the party(혹시 놓쳤을까 봐 알려드려요: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 보세요)의 형식으로 사용한다. FOMO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놓치지 않고 알고, 알려야 한다는 강박이 반영된 표현이다.

YMMV도 재미있다. Your Mileage May Vary. 당신이 느끼는 바는 경험, 기호, 기대치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70년대 자동차 회사들이 운전자의 습관이나 기호 등 상황에 따라 차의 주행거리가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안내문을 붙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상품 후기 등에 개인이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줄임말이다.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때도 관용구처럼 YMMV를 사용한다. I didn't like it but YMMV. (나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줄임말이 따로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IYKYK은 2019년부터 트위터에서 부쩍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틱톡에서 2020년에 가장 유행한 줄임말 중에 하나다. If You Know, You Know의 약자로 아는 사람은 안다는 뜻

이다. 내부적으로는 아는 사람끼리는 다 알 만한 농담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대화보다는 텍스트나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팬데믹 기간에 When I'm in virtual class and my camera is turned off #IYKYK처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만한 상황을 나타내는 해시태그로 크게 유행했었다. 넓디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비슷한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약자에도 나타난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POV도 많이 보이는 줄임말로 Point Of View다. 재미있게도 POV는 18세기 초반부터 쓰인 표현이다. 시점, 관점, 내 의견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POV 포스팅은 당신의 시점에서 보기에는 내가 포스팅한 내용이 어떠냐는 의미로 쓰인다. 대중매체의 뉴스가 사안의 경중을 따졌다면 소셜 미디어는 개개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매체임을 POV의 유행에서도 알 수 있다.

DD와 DS, DH는 각각 Dear Daughter와 Dear Son, Dear Husband의 줄임말로 자녀와 남편을 언급할 때 인터넷에서 자주 쓴다. 90년대 인터넷 초창기 AOL과 야후에서 여성 회원이 많은 육아, 임신, 여성 건강 관련 그룹 중심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간소화해서 쓰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dear을 붙여 유머스럽게 표현한 줄임말이다. 이제는 인터넷 기본 단어다.

F는 following이라는 뜻으로 페이스북 그룹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포스팅 코멘트에 F

를 쓰면 주제나 질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더 많은 대답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소셜 미디어가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임을 보여주는 줄임말이다.

줄임말은 아니지만 숫자 420은 잘 알려있 다시피 마리화나를 뜻한다. four-twenty라고 읽는다. 420가 마리화나를 뜻하는 경찰 범죄 코드여서 은어가 됐다고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1971년에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우연히 마리화나 경작지를 알려주는 보물 지도(?)를 손에 넣었고 방과 후 4시 20분에 만나 마리화나를 찾아 나섰다. 마리화나 경작지는 끝내 찾지 못했지만 이야기기 퍼져나가 은어 420가 생겨난 것이다. 4월 20일은 비공식적인 마리화나 기념일로 각종 행사가 열린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문화사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은어다.

1437은 I love you forever라는 뜻으로 각 단어의 알파벳 숫자를 나열한 것이다. 과거에도 유행했었지만 작년부터 틱톡에서 다시 번지고 있다. 831은 I love you인데 총 8개의 알파벳 글자, 3대의 단어, 1개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사랑 고백을 숫자로 하는 문화는 뽀뽀 세대를 지나 지금도 여전히 유행한다.

김연신

UCLA 정치학 전공 TESOL 부전공 / 라디오 코리아, 미주 한국일보 기자 / 영어 관련 블로그, 소셜미디어 그룹 운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lesmiles0803>

뻥한 기사  
한번 보고  
버려지는  
신문기사

US메트로뉴스  
오래 두고두고  
보셔도 됩니다

## 11살 다솔이의 그림 일기

### 아름다운 꽃 (Beautiful Flowers)

얼마 전 엄마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빨강, 분홍, 노랑, 여러 가지 색상의 꽃들이 모든 것을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쁜 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꽃을 그렸습니다.

꽃을 보고 그릴 때마다 놀랐습니다. 모든 꽃은 서로 다르고, 이따름이 각각의 꽃을 독특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다름을 돋보이게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꽃은 물감을, 배경은 오일 파스텔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꽃은 다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다름은 독특함이고, 독특함은 곧 특별함입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엘림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에이전시입니다.



- 메디케어
- 오바마 케어
- 그룹건강보험
- 메디칼 및 소셜 연금
- 생명보험
- 사업체 보험
- 은퇴연금
- 자동차 보험
- 주택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메디칼을 신청하세요.**

2024년부터 메디칼 자산한도가 없어집니다.  
2023년도는 1인 \$130,000 2인 \$195,000



**엘림 종합보험**  
ELIM INSURANCE & RETIREMENT SERVICES INC.  
License # 0M99487

Los Angeles **213.315.5052**  
LA 한남마켓 건너편  
2727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06  
hanna@aceinsus.com

Fullerton **714.382.6883**  
플러턴 아리랑마켓 안  
1701 W Orangethorpe Ave #101  
Fullerton, CA 92833  
candice@aceinsus.com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 남성 지배 화단에서 여성 폼하 깬 미국 모더니스트



landscape



A force of nature



Georgia O' keeffe



Ram's Head Blue Morning glory



red poppy

## Georgia O' Keeffe

불경기, 가뭄 훼손되던 시기 미국 힘 보여줘  
꽃, 사막, 동물 뼈 등 생활 경험과 연계 표현

얼마 전에 샌디에이고 미술관을 다녀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여성 화가인 조지아 오키프(Georgia O' Keeffe)와 영국의 조각가인 헨리 무어(Henry Moore)의 작품을 통합하는 획기적인 전시회 소식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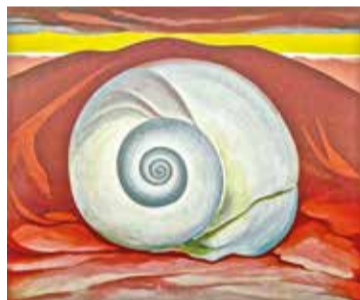
두 작가 모두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작품의 근본으로 하며, 작품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표현의 방법, 삶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전시회라 생각한다. 두 예술가 모두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로서 현대 미술에 공헌을 한 모더니스트였지만, 특별히 조지아 오키프는 당시 남성이 지배하던 화단에 여성작가로서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예술가로서 인정받았던 모더니즘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 Keeffe 1887~1986)는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나 근교의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예술가가 될 것을 결심하여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전통 회화 기법을 배운다. 작품활동과 더불어 미술 교육에도 참여한 오키프는 평범한 작가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작가인 아서 웨슬리 다우(Arthur Wesley Dow)의 혁명적인 사상을 연구하면서 그녀의 예술적 실천은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오키프의 예술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첫 번째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서부 텍사스로 가서 2년 동안 추상화를 실험하며, 일련의 추상 목탄 드로잉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각 언어를 개발하게 된다. 오키프는 매우 추상적인 드로잉 중 일부를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그녀의 친구는 나중에 오키프의 남편이 될 저명 사진작가이자, 미술계의 유력한 리더인 알프레드 스타글리츠(Alfred Stieglitz)에게 그것들을 보이게 된다.

1916년 알프레드의 도움으로 그녀의 작품을 처음으로 뉴욕에서 전시하게 되며, 그녀에게 찾아온 인생의 두 번째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된다.



georgia o' keeffe and shell



jack in the Pulpit



water fall

1920년대 중반까지 종횡무진 오키프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화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양귀비/Oriental Poppie)는 꽃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200점 이상의 꽃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꽃 그림은 일생동안 '여성의 생식기를 그린 추상화'로 여겨졌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예술이 1920년대에 비평을 받는 방식이었고, 특히 남성 평론가들은 그녀의 그림을 저속한 섹스 표현이라고 간주했으며, 여성작가의 작품이란 이유로 폼하했다.

오키프가 주로 다룬 그림의 주제는 꽃, 사막풍경, 그리고 동물의 뼈였는데, 모두 그녀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 경험과 연관된 것들이었다. 1929년 오키프는 뉴멕시코 북부로 여행을 떠나면서 접하게 된 황량한 사막의 풍경과 아메리카 원주민 및 히스패닉 문화의 영향은 그녀의 예술세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오키프는 대부분의 여름을 뉴멕시코에 살면서 작업을 했으며, 그녀의 남편이 사망한 지 3년 후인 1949년 영구적으로 뉴멕시코 산타페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이어간다.

오키프의 그림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 동물의 뼈, 그중에서도 소의 풍화된 두개골을 그린 작품에서는 불경기, 경제적 불안정, 가뭄이 국가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하

던 시기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시기의 작품 시리즈는 73세에 시작된 <구름과 하늘의 조감도>라는 풍경화인데, 세계의 명산을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장관을 독특한 그녀의 시각으로 해석된 작품들이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과 시력의 저하로 고통을 받았지만 오키프는 자신의 힘으로 유희를 그렸고, 90세가 넘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조수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녀는 기억과 생생한 상상력에서 좋아하는 모티프를 그리기도 했다.

평생 외길 그림 인생을 걸던 조지아 오키프는 1986년 산타페에서 9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나는 그저 내가 본 것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며, 내 그림은 세상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 내가 세상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녀의 소회는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많은 생각을 찾아내고, 고독을 경험하면서 완성되어진 승화된 예술이기에 가히 독보적이며 신비로운 추상성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뉴멕시코 언덕에 있는 고스트랜치(Ghost Ranch) 스튜디오에는 조지아 오키프의 작업실과 그녀의 수백 여점에 달하는 작품들과 컬렉션, 그녀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글이경수



# 잘 감지되지 않는 신장암 대부분 65~74세에 진단

**미국암 발생의 8번째 차지하는 일반 암 대부분 “내가 왜 걸렸지” 원인 몰라 암전문의 “그냥 재수가 없다” 로 생각 20년전만해도 치료 어려워 1년내 사망**

신장암은 미국의 일반적인 암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암협회는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8만 1,800건의 새 케이스가 진단됐다고 밝혔다. 2022년 신장암은 백혈병과 갑상선보다도 더 많은 미국내 8번째 암으로 기록됐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종양암 학과의 앨리스 팬 부교수는 “처음 진단 받았을 때 환자의 반응은 ‘신장에 암이 생기는 지는 몰랐다’ 는 반응을 보인다” 고 전했다.

사람은 콩 모양의 주먹만한 신장을 몸 양쪽으로 2개 가지고 있다. 등 쪽으로 갈비뼈 아래 위치한다.

신장에 있는 수백만개의 작은 필터들이 매일 200쿼트(1쿼트는 약 0.94리터)의 피를 걸러내 독소를 제거하고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미네랄과 물을 걸러 소변으로 만든다. 신장은 또 혈압을 유지하고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며 음식물 또는 햇빛을 받아 형성되는 비타민 D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한다.

이 신장암은 이 작은 필터에서 대부분 시작된다.

필터에 생긴 암은 대부분 아직 신장에 있을 때 발견되지만 일단 몸으로 퍼져 나가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의학 기술이 발달돼 치료가 매우 좋아지고는 있다.

## 다양한 신장암

신장암 역시 일반 암처럼 신장에서 발견되지만 생김새와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 케터링 암센터의 이정환 비뇨생식기 암 전문의는 환자 70~75%는 투명세포 신장세포암종, 신세포암(보통 중년 이상에서 나타나는 신실질암) 이라면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매우 투명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세포가 투명하지 않은 신장세포암이다. 젓꼭지 모양의 신장세포암, 신장 수질암종, 난형성신

장세포암종 등이 있다.

팬 부교수는 변종인 “육종양암종” 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 암전문의는 “첫 분류를 병리학자들이 현미경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서 “어떤 치료가 될지 결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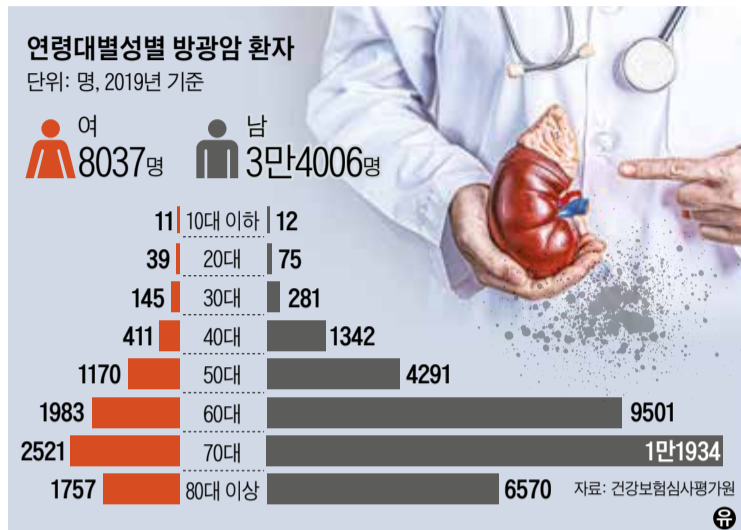
대부분의 암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미국암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65~74세에서 진단된다. 남성의 발병율이 여성의 2배에 달하고 남성의 평생 위험성은 대략 2%인데 비해 여성은 1%다. 왜 성별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인종도 영향을 준다. 흑인이 백인보다 더 악성 신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문외는 혈압, 비만, 유전 등의 위험 요소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원인

휴스턴 MD앤더슨 암센터의 산지타 고스와미 교수는 “왜 내가 신장암에 걸렸는지 묻는 질문을 받는다” 고 말했다. 매우 드물게 유전된다. 전국암연구소의 따르면 신장암의 5~8%는 특정 암 위험을 높이는 유전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위험 요소를 높이는 요인을 짚어서 말하기는 힘들다. 담배는 신장암 발병 위험을 두배 높이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 흡연자의 15~30배에 달한다.

비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고혈압 역시 때로는 영향을 미친다. 물론 많은 형태의 암을 포함해 각종 질병은 흡연과 과음을 피하고 비만을 예방



하면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신장암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다. 대개는 신장암에 걸렸다면 그냥 불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암전문의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지만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또 건강에 좋은 것만 한다고 해도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진단

유방암과 전립선 암은 정기적인 스크린이나 PSA 테스트로 쉽게 감지 가능하지만 신장암은 이런 것이 없다. 위험이 높은 유전 내력이 있다면 활영술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암은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등 쪽 옆에서 통증 등의 기본 증상으로 발견된다. 진단된 암이라면 환자들이 매우 피곤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변의 피가 섞이는 것은 요도 감염 등으로 생기기므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고스와미 교수는 “요즘 신장암은 다른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발견되곤 한다” 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검사 중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고 전했다.

보통은 암세포가 매우 작고 성장

속도도 느리지만 3분의 1은 진단될 때 이미 다른 장기로 변진 상태다. 팬 부교수는 더 진전되기 전에 신장암을 찾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치료도 더 어려워진다면 특히 딱딱한 호두를 깨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많은 스크리닝 검사는 피 속의 변형물 또는 뭔가를 발견하는 것에 의존하지만 신장암은 보통 피 속의 크로모솨(종양억제 유전자)이 줄어드는 것으로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 세포에서 오는 피속에서 정상 크로모솨에서 손상을 찾기로 매우 어렵다고 팬 부교수는 밝혔다.

팬은 자체항체를 포함한 신장암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노벨상까지 바라보는 인물이다. 또 초기 단계에서 혈소판으로 감지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 치료

신장암 1~3기면 수술과 화학요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절반만 맞는다.

보통 암 1~3기면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을 받는다. 신장은 한쪽을 제거해도 다른 한쪽이 기능을 해 준다. 그런데 다른 암들과는 달리 투명세포 신장세포암은 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다.

고스와미 부교수는 보통 수술후에

철저한 관찰이 중요하며 재발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요즘은 초기 단계의 환자에게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약을 투여하는 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 신약 개발

그렇다면 적당한 치료 방법이 있는가 궁금하다. 20년간 전까지만 치료 방법이 난감했다.

환자 3분의 1은 4기에 발견된다. 이미 다른 곳으로도 퍼졌다는 의미이고 치료도 어렵다. 일부는 초기인데도 수술 후 다른 곳으로 퍼진다. 4기라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고 팬 부교수는 밝혔다.

하지만 요즘은 2가지 약이 나와 있다. 하나는 신장암 세포가 산소를 취할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혈관으로 퍼진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팬 부교수는 혈관형성억제제로 불리는 의약품이 2005년 승인됐다면서 혈관형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약으로 4기 환자의 생존율이 1년 미만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스스로 암세포를 구별해 공격하는 약이 개발됐다. 이를 체크포인트 억제제(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른다. 면역 시스템에 정상적인 T 세포를 유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부작용도 크지 않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복합 방법을 사용해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환자 절반 가량이 최소 5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이 전문의는 밝혔다. 하지만 신세포암 환자 3분의 1만 이 복합 면역 증강방법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시술되고 있다.

존김기자

## 알립니다

### 제2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 열린다

리앤리 갤러리가 주최하는 시니어 미술 공모전이 작년 많은 분들의 성원에 이어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55세 이상으로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희망’(Hope)입니다. 삶 속에서 누구나 기대하게 되는 미래를 향한 크고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 시니어 공모전에 응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더욱 자세한 행사의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 ▶접수 및 마감: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제: 희망 (Hope)
- ▶규격: 캔버스나 종이 18×24인치

- ▶미디어: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믹스드 미디어
- ▶참가비: 50달러(1인 1점)
- ▶제 출: 리 앤 리 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 ▶문의: (213)365-8285 이 아그네스

## 6월 추천 詩

## 윤사월(閏四月)

정순영

산진달래가  
넋가로 내려와 사는화개골  
진목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목련이 피면윤사월  
우는 빠꾸기붉은 노을에  
외로운 나그네

## 〈감상〉

농자들의 역법인 윤사월은 윤달이 4월에 들은 달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 달이 더 늘어난 해다. 최근의 윤사월은 2020년이었고, 다음의 윤사월은 2050년까지 없다 한다. 참 드문 해다. 이 해엔 자목련이 피면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토속적 믿음이 있다. 자목련, 빠꾸기, 나그네 등등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어들이다. 아마도 이 시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였는데 다행히 정순영 시인과 친분이 있어서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형제 중 사업가로 성공한 두 살 위 형님이 계시다네. 폐암으로 아프셨는데 이겨내셨어. 하지만 형님을 돌보시던 형수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 형님은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고향에 귀향 집을 마련하여 지내신다네. 거기에 내 서재도 만들어 주시고 홀로 인생을 수양하고 계시다네” 시인의 형님을 詩 중 나그네에 대입하면 그 의미하는 바가 절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 추천작가

## 이해우(미국명: Jason Lee)

저서: 흑등고래의 노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2020 모산 문학상 대상 수상.  
2018 <나래시조> 신인상 등단.  
2006 미주 중앙 신인문학상 수상 (단편소설)  
Senior java Programmer at Disney Consumer Products  
Senior java Programmer at Pratt & Whitney Rocketdyne  
Senior Bio-statistician and DB Manager at Kaiser Permanente



이정아의

이달의 수필

## 나무의 지혜, 준 드롭(June Drop)

백수로 지낸 지 오래되었다. 외출이라곤 병원에 검사하러 가거나 수영하러 스포츠센터에 가는 정도이다. 책 읽고 컴퓨터 하고, 글도 쓰면 하루가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오래 놀다 보니 지루하다. 30분 일을 하면 한 시간은 쉬어야 하는 저질 체력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도 일해서 돈을 벌 기회는 없는 셈이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물주고 들여다보는 재미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캘리포니아는 늘 가뭄이어서 정원 놀이도 즐겁지만은 않다. 화초도 물을 덜 먹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류로 바꾸길 권하고, 잔디도 인공 잔디로 교체하면 수도 전력국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한다. 우리 집도 스프링 클러를 잠그고 호스로 물을 주기 시작했고, 설거지물을 모았다가 텃밭에 준다. 회사의 잔디밭은 인조 잔디로 바꾼다고 신청해 두었다.

나처럼 장기이식을 한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먹는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 삼가고, 정원일이나 분갈이도 하지말라는 퇴원시의 주의사항이 있었다. 그걸 깜빡하고 흙을 만졌더니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겨 고생 중이다. 봉지 흙에 퇴비가 섞인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가만있는 게 돕는 거라며 사고치지 말라는 남편의 잔소리 들었다.

텃밭을 돌보러 뒷마당에 자주 내려가다 보니 평소엔 관심 없던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물을 주다 보니 여물지 않은 아기열매가 무수히 나무 주변에 떨어져 있다. 꼭지까지 달린 채로 사과·복숭아·자두·감나무·아보카도 등 우리 집 유실수 거리가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며칠을 관찰해 보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달려있

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 보인다. 물을 덜 주어서 생긴 병인가 싶어 내 탓인 양 달컹했다.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 집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걸 처음 봤냐며 혀를 찬다. 해마다 6월경에 과일나무에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준 드롭(June Drop)’ 이라고 한단다? 나무의 다이어트 방법이란단다. 열매를 먹기만 했지 도통 돌보지 않았으니 전혀 몰랐다. 가드닝 전문회사인 허드슨 밸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똑같은 설명이 나와 있다.

“It’s also time for the fruit trees to do a little self-pruning. Over the next few weeks, you should start to see some of the small fruits dropping and littering the ground. Don’t panic. This is normal. They’ve even given it a name. It’s called June Drop.”

초보 농부는 놀라지 말란다. 그게 정상이라고. 나무의 스스로 걸러내기 방법, 더 튼실한 열매들을 위한 약한 것들의 희생인 것이다. 자연의 질서 유지방법은 신기하다. 당연한 듯 비우고 내려놓기를 하고 있다.

앞다투어 선두에 서려는 사람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승리의 쾌감을 느낀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은 돌보지 않는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산다. 알아서 욕심을 덜어내는 나무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내 인생의 6월도 비울 줄 아는 순한 나무 같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담긴 뜻을 헤아려 보며 살 일이다.

## 공격적 말기 치료 폐해

## 13면에서 계속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심각한 질환의 윤리 및 결정 센터’ 더글라스 화이트 소장은 “가족들은 의사가 실제 말하는 의미 이상의 낙관적인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족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견딜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결국 잘못된 낙관이 더 공격적인 치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자신의 의도보다는 가족의 의견이 더 강력할 수 있다.

제니퍼 발렌타인 캘리포니아 ‘동정적 치료 연합’ 대표는 친척중 하나(79)가 말기상태가 되면

자신은 공격적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전립선 암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자 오히려 그의 부인이 공격적 치료를 고집했다.

발렌타인 소장은 “그가 거부했다. 계속 호스피스를 원했다. 하지만 부인은 절대 안된다고 우겼다” 고 전했다. 결국 그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3번의 고통스런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호스피스에서 숨졌다.

말기 암환자의 고통완화 치료(palliative care)는 환자 생활의 질도 높이고 또 환자를 덜 우울하게 만든다. 공격적인 치료를 받을 때 보다 더 오래 산다. 또 요즘은 말기환자를 편안하게 치료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도록 하는 치료 방법도 많다.

존김기자



# 집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초록의 힘

## 실내식물 키우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 이후 달라진 풍경 중 하나가 생활 원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집안 사정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집안 내 인테리어 등에 눈길을 돌리면서 실내식물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BBC 뉴스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시들시들 죽어가던 실내식물이 본인의 정성스런 손길로 인해 되살아나는 '경이로운 재미'를 경험하고 나면 생활 원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공기정화, 심신안정, 실내인테리어 등 실내식물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식물 역시 생명인지라 주인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적당한 햇이나 물은 당연하고 습도, 그리고 통풍도 실내식물의 잘 자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보자들도 쉽게 가꿀 수 있는 실내 식물들과 주의할 점들을 소개한다.

### 몬스테라: Monstera

북유럽풍의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2016년 2017년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실내식물이다. 커다란 잎에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몬스테라는 무지마한(?) 생명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키우기 특히 좋고, 특이한 모습이 매력적이며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인기가 있다. 직사광선은 피하되 최대한 밝은 곳에 두고, 겉흙이 마르면 화분 밑 배수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듬뿍 준다.

### 멜라니 고무나무: Robusta, Rubber Plant

활기 있게 뻗은 잎이 강한 생명력을 전하는 고무나무는 관리가 까다롭지 않고 산소 발생량이 많아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내식물



로 인기가 많다. 온도 변화에 예민한 편이라 창가나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도도 40%~70%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물은 1주일에 1번 정도 흙 표면이 마르면 듬뿍 준다. 잎사귀는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자금우: Ardisia

자금우는 6월에 흰색 혹은 빨간색의 꽃이 피며, 9월에는 빨간 열매가 달려 다음 해 꽃이 필 때까지 달려있다. 미세먼지를 제거해 실내 공기를 제거해 주는 효과도 탁월하며, 관리가 쉽고 초록 잎과 빨간 열매가 어우

러져 관상용으로 좋아 실내 화초로 인기가 많다.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다. 잎이 살짝 처졌거나 혹은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1주일에 한 번 정도 충분히 물을 준다. 자금우는 한편 돈을 불러준다는 의미로 '천냥금' 이라고도 불린다.

### 금전수: Eternity Plant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금전운' 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꽃말은 '번영' 이다. 금전수의 잎사귀가 동전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번영을 가져다주는 식물이다 보니 집들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 이후 실내화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초록초록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실내 식물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개업식 선물로 인기가 많다. 공기 정화와 가습 기능이 있으며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도 있어 TV나 컴퓨터 옆에 두면 좋다.

다육식물로서 건조한 환경에서 잘 버티지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따뜻하게 조절해 주어야 하며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 또한 직사광선도 피해야 한다. 한달에 한 번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된다. 잎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산세비에리아: Sansevieria, Snake Plant

영원불멸의 꽃말을 지닌 산세비에리아는 아스파라거스과의 다육식물이다. 단단하고 직립으로 자라는 나뭇잎이 활기찬 느낌을 선사하며 공기정화 능력도 탁월하다. 생명력이 강하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다육식물이니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물은 한달에 2회 정도 속흙까지 충분히 말랐을 때 준다.

Seoul.go.kr (서/홍지은 기자)

###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 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 / 현 공인회계사·슈퍼 맘 / 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 아시안 이민자들, 가족에 의지해 생 마감 위해

## 아시안 7%만 생의 마지막 준비 의료지침 없이 가족 돌봄 기대

아시아계 미국인은 죽음과 생의 말기에 대해 다른 인종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의료 지침을 적어 놓지 않고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 생의 마지막을 돌봐 주는 호스

피스 업체 'VITS'에 따르면 아시안은 죽음을 가족간의 슬픔으로만 간직하려 하고 아픈 것도 공개하지 않으며 또 말기 환자 간병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로버트 누엔 박사는 "아시안 시

니어들은 고통을 견디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정도 고통은 약한 모습 보이거나 얼굴색 변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아시안의 41%는 죽음에 대해 타인종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라틴계 36%, 흑인 27%, 백인 24%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위험

이나 질병이 덮칠 때 이에 대한 준비는 별로 해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7%만이 의료 지침서 등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를 대비한 서류를 작성했다. 백인 27%, 흑인 22%, 히스패닉 21%보다 현격히 낮았다. 이유는 정보 부족이다. 응답자 2/3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누엔 박사는 "이민자들은 호스피스와 말기 환자 간병 서비스, 다소간의 진통제 등에 생소하다"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많은 수가 집에서 외부의 간병 도움 없이 가족에 의지해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족이 간병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아닌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정섭 기자

## 에일리, 6월 24일 폐창가 공연

###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등 OST 여왕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한국의 비운세라 불리는 가수에 일리가 오는 24일(토) 오후 6시 폐창가 리조트 서밋 공연장에서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한다. 에일리는 데뷔전 소녀 시절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팝송 커버 영상 상이 천만뷰를 기록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다.

2012년 휘성이 프로듀서를 맡은 'Heaven'으로 데뷔한 에일리는 '보여줄게' '저녁하늘' 'U&I' '노래가 늘었어' '손대지

마'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솔로 보컬 중 하나다.

에일리는 백지영과 더불어 OST 여왕으로도 불린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역대 스트리밍 1위를 기록을 기록했다. 티켓 가격은 80달러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정보는 폐창가 전화 문의 (888-810-8871) 하거나, 웹사이트 (pechanga.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시낭송 싱글 회원 모집

시낭송 싱글 모임이 발족됐다.

시를 좋아하고 남 앞에서 암송할 수 있는 55세 이상 싱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amordeflauta@gmail.com

## 이민 120주년 3인 작가전 성황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지난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층 갤러리에서 '2023년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The Beautiful Journey> (아름다운 동행)' 특별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별전에는 미술가 강태호, 김소문, 현혜명씨의 3인의 작품 45점이 전시됐다. 오프닝 리셉션에서 작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화원은 27일 오후 LA중앙도서관에서 '2023 Korean Spirits'을 주제로 한국 전통 국악 공연을 개최했다. (한국문화원 제공)

## 한국 소설 '고래' 작가 초청 북토크

작가 천명관, 번역가 김지영  
LA는 8일, 댈러스는 11일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영국 부커상 최종후보작에 선정된 한국 소설 '고래' (Whale)의 천명관 작가와 김지영 번역가를 초청해 6월 8일과 11일 각각 LA와 댈러스에서 북토크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국작가협회인 '펜 아메리카' (PEN AMERICA)와 '고래' (Whale)의 영문판 도서 출판사인 '아키페라고 북스' (Archipelago Books) 협력으로 진행되며, 댈러스에서는 댈러스 컨템퍼러리(Dallas



천명관 작가



김지영 번역가

Contemporary) 미술관과 현지 출판사가 함께 한다.

'고래' (Whale)는 산골 소녀에서 소도시의 기업가로 성장하는 금복과 그녀의 딸 춘희의 삶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이 담긴 작품이다. 2004년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고 10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특히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급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6월 8일 오후 7시 LA 세컨드스텝 할리우드에서 열린다. 행사 참여는 무료이고, 이벤트브라이트(Eventbrite)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한편 텍사스 행사는 6월 11일 오후 5시 텍사스주 댈러스 컨템퍼러리(Dallas Contemporary) 미술관 열린다.

한국문화원 노지영 담당 제공

# 소셜시큐리티없이 은행구좌처럼 사용



블루원 마스터 카드 경영진들이 지난달 LA 한인타운 안내센터 개소식에서 카드에 대해 설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성 미디어 홍보담당, 앤드류 반 CFO, 제임스 고 회장, 에릭 권 카드부 CEO, 크리스 정 리테일 담당.

## 최대 2만 달러까지 입금 가능한 FDIC 보증 상품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 개설-여권 등 ID 확인만

요즘 크레딧이 없거나 신분 때문에 은행 구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 구좌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상품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인 제임스 고 대표가 운영하는 ‘블루원 카드’(Blue One Card)가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불체자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은행 구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 크레딧 점수가 없어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5,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은행 구좌가 절대적이다. 돈을 넣어 두고 필요할 때 수표로 또는 현금을 찾아 사용한다. 그런데 은행 구좌를 개설하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규정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고객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혹시라도 불법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가를 확인, 감시한다.

하지만 ‘블루원 카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개설할 수 있다. 은행처럼 돈을 넣어 두고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약을 하거나 공과금을 낼 때도 편리하게 사용된다.

다만 분실을 대비해 가입할 때 본인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운전면

허를 제시해야 한다. 만기가 지난 여권도 관계없다.

블루원 카드는 마스터 카드사와 제휴 돼 있는 크레딧 카드 발행사이다. 그래서 이름도 ‘블루원 마스터 카드’(Blue One Master Card)다.

또 은행 감독기관 FDIC로부터 25만달러까지 디파짓 금액을 보장받는다. 상장 기업으로 현재 가치가 급상승중인 신뢰받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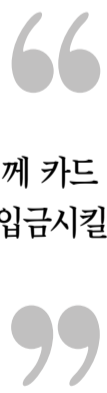
이미 멕시코 등 히스패닉 각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 ID로도 가입이 가능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블루원 카드’는 기프트 카드도 발행한다. 역시 마스터 카드와 제휴 돼 발급되는 기프트 카드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신분증이나 이름이 필요 없는 선불 카드다.

지난달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블루원 마스터 카드 코리아타운 지점’(2716 W. Olympic Bl. #209, LA)을 개설하고 한인 고객들을 돕고 있다.

지점 개설 기념으로 카드 가입자에게는 20파운드 쌀을 9.99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무료 1일 단체 관광 혜택도 제공한다.

블루원 마스터 카드란?  
은행 구좌를 열지 못하는 한인들도 은행 구좌처럼 사용할 수 있는 획



부모님께 카드 보내고  
정기적 입금시킬 수 있어

기적인 금융 상품이다. 블루원 카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 없다. 은행 구좌에 돈을 넣고 쓰는 것처럼 블루원 카드에 돈을 넣고 사용하면 된다.

-사용 금액에 한도가 있나  
은행 계좌 처럼 사용할 수 있는 ‘블루원 마스터 카드’는 최대 2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반면 기프트 카드는 장당 최대 500달러이다. 하지만 ‘블루원’과 업무 제휴를 맺으면 2,500달러까지 기프트 카드도 가능하다. 수수료가 매우 적어 대형 교회의 선교사 파송 기금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카드 돈은 안전한가  
은행 감독국인 FDIC의 정식 승인을 받은 상품이다. 따라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연방정부에서 보증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부모님에게 쉽게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데  
발급받은 카드를 부모님께 드리면 된다. 자녀들은 이 카드에 계속 돈을 넣어 드릴 수 있다. 이미 멕시코 등 히스패닉 고객들은 고향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편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를 2개 발급받아 하나는 멕시코로 보낸다. 그리고 미국에서 카드에 돈을 넣어 주면 된다. 고향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웰페어 SSI를 받는다. 은행에 돈이 많으면 SSI가 끊겨 받는 즉시 찾아 집안에 현금으로 보관한다.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찾

아 집안에 보관하면 매우 위험하다. 절도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블루원 마스터 카드를 오픈하고 여기에 돈을 적립해 두면 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묻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알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합법적인 상품인가  
물론이다. 카드를 신청하면 스폰서 은행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 데빗 카드’의 온라인 체킹 어카운트도 개설해 준다. 또 은행 고유번호(ABA number)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카드에 연결된 구좌는 시중 은행 예금처럼 FDIC의 예금액 보증을 받는다.

-어떻게 개설하나  
온라인으로 또는 셀폰 앱을 사용해 가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전화 서비스를 통해 받거나 직접 한인타운 오피스를 찾아 도움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https://ww2.blueonecard.com/blueone>에 접속하거나 셀폰으로 ‘blueonecard’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 첫 가입자를 누르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분증을 업로드 시킨다. 구좌가 개설 되면 돈을 입금시키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도움을 받으려면  
(213)736-0000(한국어)으로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영어 안내는 (800)210-9755(영어).  
▶이메일: [Info@blueonecard.com](mailto:Info@blueonecard.com)  
▶신청: [www.blueonecard.com](http://www.blueonecard.com)

# 자카란다 피는 계절이 되면...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  
수석 코디네이터

‘자카란다’ 피는 계절이 되면 건강 검진을 생각한다. 아주 사소한 대화가 자카란다라는 ‘꽃’ 과 건강검진이라는 ‘행동’ 을 연결시켰다. 5년 전 이맘때다. 회사 동료들과 길을 걷고 있었다. 자카란다 나무 아래를 지날 때쯤, 한 동료가 말했다.

“자카란다가 보면 자궁경부암 캠페인이 생각나.”

동료들은 한참에 걸쳐 자궁경부암 예방과 정기검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에스 티엠포(Es Tiempo)’,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었다. 에스 티엠포는 ‘때가 됐다 (It’s time)’ 는 뜻의 스페인어다. 자궁경부암 검사율이 낮은 라틴계 여성들에게 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정기검진을 장려하기 위해 이스트 LA를 중심으로 이뤄진 캠페인이었다. 가로수에 걸린 배너나 버스 정류장 광고에서 만나는 ‘에스 티엠포’ 는 자카란다 만발한 계절이 되었음을, 또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예방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 캠페인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특히 캠페인의 ‘지속 가능성’ 부분엔 큰 박수를 쳐주고 싶



사진 출처: Designmatters at ArtCenter College of Design

이를 좋아하는 민족이니 문화적으로도 잘 맞는다. 한인 사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을 넘어 “자카란다=정기검진”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적어도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겐 그랬으면 좋겠다.

자카란다가 볼 때마다 내가 올해 정기검진은 받았는지, 예약은 했는지, 꽃놀이 동무인 내 친구는 어떤지 떠올려 보길 바란다. 2023년 정기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병원 한번 가야지 하며 미루고 있었다면 ‘에스 티엠포’ .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카란다가 만발하는 때,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바로 그때 말이다.

다. 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캠페인도 언젠가 끝이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엔 동일한 메시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건강교육을 할 때마다, 건강 관련 행사를 할 때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에스 티엠포 캠페인은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놨다. 이 캠페인을 통해 ‘자카란다가 피는 계절=자궁경부암 검사 받을 때’ 라는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매년 자카란다 피는 계절이 돌아오면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을 저절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 매년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카란다꽃이 매년 자연스럽게 정기검진 시즌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셈이다. 정말이지 똑똑하게 잘 만든 캠페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캠페인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진행되길 바란다. 한인들도 봄꽃맛이 대추제나 꽃놀

## 유방암 환우&가족 위한 ‘유방암 치료의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6월 26일 오전 10시  
이진선 시더스-사이나이  
유방암 전문의

김동희

현재 미국병원 암센터 커뮤니티 아웃리치팀 수석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 '미국엄마의 힘' 저자. 연락처: (213)545-1014

한인 유방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유방암 전문의의 강의가 열린다.

오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베벌리힐스에 있는 시더스-사이나이 병원에서 “한국인 유방암, 치료법의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개최되

는 것. 강사로는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이진선 유방암 전문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인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방암의 특징과 유방암 치료의 눈부신 변화, 그리고 최신 유방암 치료법 소개 및 임상시험의 중요성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우는 물론 가족이나 친구, 유방암 생존자 등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참석인원은 20명(선착순)이다.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310)423-7410

###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27)

####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 (서비컬 캔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암. 자궁경부암은 암이 되기 이전 단계인 전암 단계를 상당 기간 동안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

#### Endometritis: 자궁내막염 (엔도메트라이티스)

자궁내막에 병원체가 침범하여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의 양상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며 급성 자궁내막염은 발열이나 통증, 만성은 자궁출혈, 생리과다복부 불편감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 Endometrial Cancer: 자궁내막암 (엔도메트리얼 캔서)

자궁 내 공간을 덮고 있는 조직인 자궁내막에 생기는 암으로 비정상적인 질 출혈 증상을 보인다. 일찍 병원을 방문하면 비교적 초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다.

#### Gynecology: 부인과 (가이나칼러지)

산부인과(OB/GYN)는 임신 준비부터 종결까지를 돌보는 산과 (Obstetrics), 여성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 연구하는 부인과 (Gynecology)로 나뉜다.



Powered by BlueOne Card, Inc



우리 가족도 당당히  
카드로 예약하고  
여행 갈 수 있어요

에미야! 바쁘면 오지 말고  
블루원 마스터카드 체크구좌로  
용돈 넣어줘라~

**미국에 बैं크 어카운트 없는 사람  
5천만명**

## 미국에 बैं크 어카운트가 없거나 은행구좌 여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위한 희소식!

크레딧과 상관없이 모든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Guaranteed Approval)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 어카운트 못갖는분들은 블루원 프리페이드 카드를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블루원 카드 연동 체크구좌가 생성됩니다.  
이제, 각종 예약이나 모든 공과금 결제를 편리하게 블루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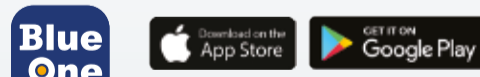
**가입신청** [www.BlueOnecard.com](http://www.BlueOnecard.com)

희망을 전하는 블루원 카드

**블루원 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 혜택**

- ☑ 누구나 오픈이 가능하고
- ☑ FDIC 정식 등록 बैं크 **FDIC**
- ☑ 무료체크링 어카운트 제공
- ☑ 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예약 결제 가능
- ☑ 본인체크링구좌에서 블루원카드로 이체가 가능
- ☑ 해외 송금도 빠르고 쉽게 (멕시코, 필리핀)
- ☑ 마스터카드 공인 파트너사

**카드현금충전소**



블루원 마스터 카드는 두종류로 Prepaid card 와 Gift card가 있습니다.  
**프리페이드 카드** 는 선불로 충전해서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프트카드** 미국내 판매되는 기프트 카드는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블루원카드는 미국 및 전 세계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카드입니다.  
블루원카드 만이 유일하게 전세계 무기명 사용이 가능. (전세계 직원월급 및 커미션 지급 가능)



**KOREA TOWN 지점**

Olympic Blvd

Vermont Ave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한남체인 옆 건물 2층

**문의전화** | 한국어 213.736.0000 | 영어 1.800.210.9755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자세히 보내주세요. [info@blueonecard.com](mailto:info@blueonecard.com)

**BlueOne** Card, Inc.  
Empowering Financial Sovereignty

2716 W. Olympic Blvd. #209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6.0000



# 여름을 시원하게!

